

# 바른답·알찬풀이

중등

국어

1-1



중학교에서 알아야 할 **핵심 용어**

**맞보기** 문제 6~9쪽

- 1 ① 2 ④ 3 ③ 4 ③ 5 ① 6 ② 7 ③ 8 (1) ㉠  
(2) ㉡ (3) ㉢ 9 ② 10 ④ 11 ③ 12 ①

- 1 운문은 운율이 드러나는 글을 가리키므로 시가 운문에 해당한다.
- 2 <보기>는 설명하는 글인 설명문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3 듣는 이에게 같이 할 것을 요청 또는 권유하는 문장을 청유문이라고 한다.
- 4 ③은 명령형 종결 표현인 '-라'가 쓰인 명령문이다.  
**오답 풀이** ①은 청유문이다.  
②는 감탄문이다.  
④는 평서문이다.  
⑤는 의문문이다.
- 5 <보기>는 음운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6 '아침에', '돌개바람이', '거세게', '불었다'로 4개의 어절로 이루어져 있다.
- 7 <보기>의 '그래서'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 주는 접속어이다.
- 8 ㉠은 '주제'의 뜻이고, ㉡은 '문체', ㉢은 '구성'의 뜻이다.
- 9 평화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비둘기라는 구체적 동물로 나타내었으므로 빈칸에는 '상징적'이 알맞다.
- 10 자기의 견해나 관점을 바탕으로 쓰는 논설문은 주관적인 성격을 지닌다.
- 11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는 말을 '구어'라고 한다.
- 12 <보기>는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기본 개념을 세우는 **갈래 학습**

**01 시**

**맞보기** 문제 10~11쪽

- 1 (1) × (2) ○ 2 심상 3 ⑤ 4 ③ 5 ② 6 ③ 7 미각적 8 ④

- 1 (1) 시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서를 표현하는 글이다.
- 2 심상은 어떤 대상과 관련하여 떠올리는 마음속의 모습이나 느낌이다.
- 3 시조 등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시를 쓸 때 특별히 지켜야 할 구성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 4 시적 화자는 글쓴이 자신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글쓴이가 창조해 낸 허구적 인물이다.
- 5 이 작품은 시조로 4음보로 이루어진 정형시이다. 또한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개인적인 정서를 노래했다는 점에서 서정시에 해당한다.
- 6 시의 운율이 표면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외형률만의 특징이다.
- 7 미역의 맛을 나타내었으므로 미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 8 '밥 짓는 냄새'라는 후각적 심상을 사용하였다.  
**오답 풀이** ① 청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②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③ 시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⑤ 촉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02 소설**

**맞보기** 문제 12~13쪽

- 1 ③ 2 (1) ㉠ (2) ㉡ (3) ㉢ 3 문체 4 내적 갈등 5 ②  
6 ③ 7 3인칭 관찰자 시점 8 ④

- 1 운율은 시의 특징이다.  
**오답 풀이** ① 소설은 글쓴이가 꾸며 낸 이야기이다.  
② 인물, 사건, 배경은 소설 구성의 3요소이다.  
④ 소설은 아름다움과 감동을 전달하는 예술의 한 형식이다.

⑤ 소설은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다룬다.

- 2 ㉠은 소설의 허구성, ㉡은 서사성, ㉢은 산문성과 관련된 설명이다.
- 3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개성적인 글투나 표현을 문체라고 한다.
- 4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므로 ‘내적 갈등’이다.
- 5 ‘홍길동’은 소설의 주인공으로서 주동 인물, 주요 인물에 해당한다.
- 6 소설이 전개되면서 성격이 변하는 인물을 입체적 인물이라고 한다.
- 7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 있으므로 3인칭이고, 이야기를 관찰하여 전달하므로 관찰자 시점이다.
- 8 <보기>에서는 소설 밖에 있는 서술자가 소녀의 행동에 대해 관찰한 바를 이야기하고 있다.

### 03 수필

맞보기 문제 14쪽

1 ⑤ 2 ③ 3 비전문적 4 ③

- 1 수필은 글쓴이가 자신의 체험과 생각을 직접 쓴 글로, 글쓴이가 아닌 다른 인물을 내세우지 않는다.
- 2 건의문은 주장하는 글로 수필이 아니다.
- 3 수필은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4 소설은 있음직한 일을 상상하여 꾸며 쓴 글이고, 수필은 이와 달리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다.

### 04 희곡

맞보기 문제 15쪽

1 (1)○(2)○ 2 (1)㉠(2)㉡(3)㉠ 3 방백 4 ②

- 1 희곡은 현재 진행형의 문학이자, 대사의 문학이다.
- 2 ㉠은 음향 효과를 지시하는 무대 지시문, ㉡은 행동 지시문, ㉢은 대사이다.

3 방백은 상대역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약속하고 관객에게 하는 말이다.

4 시나리오는 스크린을 통해 상연된다.

- 오답풀이** ① 희곡과 시나리오는 모두 문학의 갈래인 극에 속한다.  
 ③ 희곡은 무대를 통해 상연되므로 등장하는 인물의 수가 제한된다.  
 ④ 시나리오는 촬영과 녹음, 특수 효과 등 기계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희곡과 시나리오는 모두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드러내고 사건을 전개한다.

### 05 설명문

맞보기 문제 16쪽

1 ③ 2 처음 / 머리말 3 ④ 4 (1)×(2)○

- 1 설명문을 쓸 때는 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 2 설명문의 처음 부분에는 읽는 이의 관심을 유도하며 글을 쓰게 된 동기를 제시한다.
- 3 <보기>는 끝 부분으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을 정리하고 글쓴이의 당부를 제시하고 있다.
- 4 (1) 설명문은 글쓴이의 주장을 펼치는 글이 아니다.

### 06 논설문

맞보기 문제 17쪽

1 ⑤ 2 주관적 3 ⑤ 4 (1)○(2)○

- 1 논설문은 자신의 의견을 뚜렷하게 제시하여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글이다.
- 2 <보기>에는 논설문의 주관적인 특성이 설명되어 있다.
- 3 결론은 본론에서 주장한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이다.
- 4 논설문은 글의 내용을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여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실현 가능한지 검토하며 읽어야 한다.

# 1 마음을 표현하는 법

## (1) 운율과 비유 20쪽

### 개념 확인 문제

1 운율 2 (1) ○ (2) × 3 ③ 4 ①

- 1 운율은 시에서 느껴지는 말의 가락이다.
- 2 (2) 운율은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말하는 이의 정서나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 3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 관념 사이에 서로 연관 지을 수 있는 공통점이나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 4 사물인 '해'에 '-님'과 '웃는다'를 사용해 인격을 부여하여 사람처럼 표현하였으므로 의인법이 드러난다.

**! 핵심 례** 21쪽  
 직유법, 뽀뽀, 숨결

**문제지 확인** 21쪽  
 1 ○ 2 의인화

**감상 \* 탐구** 22~23쪽  
 1 (1) 리듬감, 호흡 (2) 후후, 민들레, 분위기 (3) 음악성, 통일감, 분위기  
 2 (1) 민들레, 털방울, 민들레, 뽀뽀, 입술, 봄바람, 숨결, 낙하산, 바람 (2) 민들레, 참신태 (3) 주제

**적용 \* 실천** 24쪽  
 1 (1) 리듬감 (2) 팝콘, 꽃잎 2 은유법, 의인법

**학습 활동 응용 >>>** 22~24쪽  
 01 ⑤ 02 ② 03 ⑤ 04 반복 05 ④ 06 ① 07 ②  
 08 ③ 09 ③ 10 ④ 11 ④ 12 ⑤

- 01 시에 비하여 줄글은 쪽 붙여 읽게 되고 흘러가듯이 빠르게 읽힌다.
- 02 이 시는 음성 상징어 '후후', '후후후'와 어미 '-지'가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봄바람'은 반복되는 단어가 아니므로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부분이 아니다.

- 03 시에서 반복되는 표현은 운율을 형성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생동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 04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에는 비슷한 소리, 단어, 구절, 문장 구조 등을 반복하거나 글자 수, 음보 등을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것 등이 있다.
- 05 '아가'가 입술을 동그랗게 모아 '내밀고' 있는 모양이 '뽀뽀'하는 입술 모양과 비슷한 점을 바탕으로 '작은 입술 뽀뽀하듯 내밀고'와 같이 직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하였다.
- 06 '숨결'이 따뜻한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봄바람'과 비슷하여 '숨결'을 '봄바람'에 직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하였다.
- 07 표현하려는 대상인 '나(민들레)'는 빗대어 표현한 대상인 '낙하산'과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는 점이 비슷하여 '나'를 '낙하산'에 간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하였다.
- 08 '민들레'가 자신을 '아가'에게 소개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비유의 하나인 대유법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② 비유의 하나인 활유법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④ 비유의 하나인 직유법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⑤ 비유의 하나인 은유법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09 '~에 사랑이 ~요'의 문장 구조 반복, '오늘 같은 바람이 불면', '그대만'의 구절, 단어 반복과 반복적 표현인 음성 상징어 '아른아른'이 나타나 있다. ③은 이 노랫말에서 반복되고 있지 않다.
- 10 '그대가 나의 봄'이란 표현은 '~은 ~(이)다'의 형식으로 원관념을 보조 관념에 빗댄 은유법이 쓰인 것이다. ①~③, ⑤는 은유법, ④는 직유법이 쓰인 것이다.
- 11 '헌혈은 구명조끼'라는 비유를 통하여 수혈이 필요한 사람의 목숨을 헌혈로 구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강조한다.
- 12 (나)는 <후후후>에서도 쓰인 의인법('노래하는 봄', '손짓하는 꽃잎')을 사용하여 봄꽃 축제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등 친구의 만점 노트** 25쪽  
 ① 리듬감 ② 생동감 ③ 분위기 ④ 사람 ⑤ 입술 ⑥ 바람  
 ⑦ 민들레

기초  
문법  
소단원

다잡기

26~27쪽

01 ④ 02 ① 03 ② 04 ② 05 ① 06 ④ 07 ㉓에서 표현하려는 대상은 내밀고 있는 입술이고, 빗대어 표현한 대상은 뽀뽀하는 입술로 두 대상은 입을 동그랗게 모아 내민 모양이 비슷하다. 08 [A]에는 내년에 아가가 숨결이 힘차지는 만큼 더 자랐을 것이라는 '나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다. 09 ① 10 ①

- 01 (가)에서는 '-지', '후후후', '후후'가 반복되고 있다. (나)에서도 '~요', '오늘 같은 바람이 불면', '그대만' 등의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
- 02 (가)에는 '아가'의 성장을 기쁘게 여기는 '나의' 따스한 마음이, (나)에는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행복하게 전하는 '나의' 마음이 드러나 있으므로, (가), (나) 모두 전체적으로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 03 (가)의 5~7연에서 아가가 자라 숨결이 세지는 것, 즉 아가가 성장하는 것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민들레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
- 04 '팝콘 같은 꽃잎'에서는 '꽃잎'을 '팝콘'에 직접적으로 빗댄 직유법이 나타나 있다. (가)의 '너의 모자 끝애 / 달려 있던 털방울 같지'에서도 '같지'를 활용하여 '민들레'를 '털방울'에 직접적으로 빗댄 직유법이 나타나 있다.
- 05 ㄱ. (가)에서는 '후후후', '후후'의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ㄴ. (가)에서는 종결 어미 '-지'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ㄷ.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될 때 운율을 형성할 수 있다.  
 ㄹ. (가)는 읽는 중간마다 숨을 쉬면서 끊어 읽어야 운율을 느낄 수 있다.
- 06 민들레 흙씨가 날리는 시적 상황, '봄바람', '내년 봄' 등의 시어로 보아 이 시의 계절적 배경은 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말하는 이인 '민들레'는 '올해'와 '내년 봄'을 이야기하며 '아가'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 성장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07 ㉓에는 비유가 드러나는데, 비유는 표현하려는 대상과 빗대어 표현한 대상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어야 한다. ㉓에서 표현하려는 대상은 내밀고 있는 작은 입술이고 빗대어 표현한 대상은 뽀뽀하는 입술이다. 이 두 대상의 비슷한 점은 입술을 동그랗게 모아 앞으로 내밀고 있는 모양이다.
- 08 [A]에는 올해는 아가가 민들레 흙씨를 날리기 위해 숨을

세 번 불어야 하지만, 내년에는 성장하여 숨결이 세져서 두 번만 불어도 민들레 흙씨가 날아갈 것이라는 민들레의 생각이 담겨 있다. 이는 아기의 성장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민들레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 09 '그대가 나의 봄'에서 ㉓ '봄'은 '그대'를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그러나 ㉔는 '그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일 뿐 '그대'를 빗대어 표현한 말은 아니다.  
 오답 풀이 ㉒ '오늘 같은 바람 불면' '나의' '그대'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㉔는 말하는 이에게 '그대'를 떠올리게 한다.  
 ㉓ ㉔는 '내가 사랑하는 '그대'를 떠오르게 하는 소재이므로, 말하는 이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㉕ (나)에서는 은유법을 사용하여 사랑하는 '그대'가 '봄'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㉓는 '그대'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과 관련이 있다.  
 ㉖ ㉓는 포근하고 따뜻한 (나)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시어이다.
- 10 <보기>는 '가자'라는 말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나)에서는 '~요', '그대만' 등의 표현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2) 상징

28쪽

개념 확인 문제

1 추상적 2 (1) × (2) × 3 ㉒ 4 원관념, 보조 관념

- 1 상징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작품의 주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2 (1) 상징은 원관념과 보조 관념 사이에 특별한 연관성이나 유사성이 없다. (2) 상징은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대응 관계가 다대일의 다의성을 지닌다.
- 3 상징은 주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관습적으로 의미를 수용한 개념으로, 비둘기는 보통 평화를 상징한다.
- 4 비유와 상징에는 원관념과 보조 관념이 있다.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 관념이 작품 표면에 나타나는 반면, 상징은 원관념은 드러내지 않고 보조 관념만으로 의미를 표현한다는 차이가 있다.

지문 속

- P. 30 개울둑, 조약돌  
 P. 33 산, 꽃, 상처  
 P. 34 소나기, 도랑  
 P. 37 대추, 이사, 호두, 분홍 스웨터, 추억

핵심 콕콕 & 문제로 확인

- 1 ③ 2 ② 3 ① 4 ④ 5 ③ 6 ③ 7 ③ 8 ③  
 9 ② 10 ① 11 ③ 12 ② 13 ① 14 ① 15 ⑤  
 16 ④ 17 호두알, 갈꽃 18 ③ 19 ③

- 1 소년은 징검다리를 건너고 싶지만 소녀에게 비켜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해 개울둑에 앉아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린 것이다.
- 2 소녀는 소년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 주기를 바라는데, 소년이 반응이 없어 조약돌을 던진 것이지, 소년의 행동이 위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 3 ‘가을 햇살’, ‘갈꽃’ 등의 소재를 바탕으로 하여 (가)와 (나)의 시간적 배경은 가을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공간적 배경은 ‘개울, 징검다리, 메밀밭’ 등의 단어를 통해 농촌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③ 개울가, 갈밭 사잇길 등에서 향토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④ 향토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배경인 농촌은 등장인물들의 순수한 면을 잘 드러나게 하는 데 영향을 준다.  
 ⑤ ‘개울, 징검다리’라는 공간적 배경에서 소년과 소녀가 만나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 4 소년은 피부가 하얀 소녀와 달리 검게 탄 자신의 모습이 못마땅했을 것이다.
- 5 서로 헤어져야 하는 갈림길에서 소녀는 소년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말을 건 것이다.
- 6 소녀가 흐드는 허수아비가 좀 전 것보다 더 우쭐거리는 것은 소녀가 전보다 더 격하게 허수아비 줄을 흔들었기 때문으로, 소녀의 즐거운 감정이 고조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 7 소녀는 무가 맛이 없다며 집어 던진다. 이 모습을 본 소년은 소녀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자신도 소녀와 같은 생각임을 보여 주고 싶어서 무를 더 멀리 던져 버렸다.
- 8 소녀에 대한 호감과 소녀를 위하는 마음으로 소녀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 9 소녀에게 자기 혼자만 할 수 있는 멋진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소년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 10 ‘어린 송아지’는 소년과 소녀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11 소녀는 수숫단 앞에 앉아 비를 맞는 소년이 안쓰러워 수숫

- 단 속으로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의 어려움을 모른 채하고 있지 않다.
- 12 도랑을 건널 때 소년이 소녀를 업어 줌으로써 둘 사이는 이전보다 가까워지고 서로에 대한 호감이 커질 것이다.
  - 13 분홍 스웨터의 얼룩은 소녀가 소년에게 업혔을 때 생긴 것으로, 소년은 소녀와의 추억이 떠오르자 얼굴이 달아오른다. 이는 소년이 수줍어하고 쑥스러워하는 모습이다.
  - 14 소녀는 이사를 가게 된 상황에서 소년에게 맛있는 대추를 선물하며 자신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싶었을 것이다.
  - 15 소년은 소녀가 이사 가는 것이 충격적이고 서운하여 대추의 달달한 맛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 16 소년은 소녀에게 좋은 호두를 주고 싶어 덕쇠 할아버지네 호두를 몰래 탄다. 몰래 호두를 뺐다는 죄책감과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소년은 그늘진 공간을 골라 짚으며 돌아왔다.
  - 17 (리)에서 소년은 이사 가게 될 소녀를 마주치지 못하자,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며, 한 손으로는 수없이 갈꽃을 휘어 켜고 있다. 이는 심란한 소년의 심리를 드러낸 행동이다.
  - 18 소녀는 소년과 소나기가 온 날 함께 나눈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그때 소년의 등에서 읊은 물이 든 옷을 마지막까지 입고 싶다고 했을 것이다.
  - 19 소년과 소녀의 사랑은 소녀의 죽음으로 인하여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금세 끝나게 되었으므로 제목인 ‘소나기’는 ‘짧고 강렬한’ 소나기 같은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감상 \* 탐구 38~39쪽

1 (1) ① 답답 ② 이사 ③ 호두 ④ 추억 (2) 호감, 기억 2 (1) 수숫단, 도랑, 소나기, 옷 (2) 사이 3 짧은, 강렬한 4 주제, 풍부한, 신선한

학습 활동 응용 >>> 38~39쪽

01 ③ 02 ② 03 ② 04 추억, 옷(분홍 스웨터) 05 ㄱ → ㄹ → ㄷ → ㄴ 06 ③ 07 ④ 08 ⑤

- 01 개울가는 소년과 소녀의 만남이 주로 이루어지는 공간적 배경이지만, 개울가에서 소년과 소녀가 물고기를 함께 잡은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2 소녀는 이사를 가기 전에 자신이 좋아하는 소년에게 마지

막 선물로 대추를 주었다.

- 03 소녀가 이사 간다는 사실을 안 소년은 소녀에게 주고 싶어 덕쇠 할아버지네 호두밭에서 남몰래 알이 굵고 큰 호두를 따다.
- 04 소녀는 소나기가 오던 날 소년과 함께 시간을 지내며 김붙은 진흙물이 물든 자신의 분홍 스웨터를 입혀서 묻어달라고 할 만큼, 소년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어 했다.
- 05 소년과 소녀는 함께 산 너머로 놀러 갔다가 갑작스레 소나기를 만나 비를 피하고 돌아오는 길에 불어난 도랑을 건넜다. 소나기를 맞은 뒤 병을 앓던 소녀는 결국 죽음을 맞았다.
- 06 원두막과 수숫단 속에서 함께 소나기를 피하고, 소나기로 불어난 도랑을 건너면서 소년과 소녀는 더욱 가까워졌다.
- 07 갑작스럽게 내린 소나기로 소년과 소녀는 서로 더 가까워졌지만 소나기를 맞은 소녀는 병을 앓다 죽고 만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이 글에서 ‘소나기’는 소년과 소녀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랑을 상징한다.
- 08 상징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 드러내지 않아 독자에게 신선한 느낌을 준다.

**1등 친구의 만점 노트** 40쪽

① 소나기 ② 이별 ③ 구체적 ④ 간접적 ⑤ 짧은 ⑥ 추억  
⑦ 순수한 사랑

**기초기** **소단원** 다잡기 41~45쪽

01 ① 02 ③ 03 ④ 04 소녀는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고 개울둑에 앉아만 있는 소년이 답답하여 소년의 관심(표현)을 끌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 05 ② 06 꽃(묵음) 07 ④ 08 ⑤ 09 ① 10 ⑤ 11 ⑤ 12 이전에는 소녀에게 비켜 달라는 말을 못하고 가만히 기다릴 만큼 소극적이었는데, ③에서는 소녀에게 등에 업히라고 제안할 만큼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13 ⑤ 14 호두, 얼룩 수탉 15 ⑤ 16 소녀의 스웨터에 물든 자국이 소년이 소녀를 업고 도랑을 건너 날 소년의 등에서 옳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소년은 부끄러움과 씩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17 ④ 18 ③ 19 ⑤ 20 ⑤

01 이 글의 갈래는 소설이며, 소설은 작가가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꾸며 쓴 허구의 이야기이다.

- 02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소년과 소녀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라)의 ‘가을 햇살’에서 이 글의 계절적 배경이 가을임을 알 수 있다.
  - ② ‘징검다리’, ‘개울둑’, ‘갈밭’ 등에서 공간적 배경이 농촌의 어느 마을임을 추측할 수 있다.
  - ④ 농촌에서 지내는 소녀와 소년의 순수한 모습에서 향토적이고 순수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⑤ 소녀는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는 소년이 답답하여 개울가에서 조약돌을 던졌다. 이처럼 소녀와 소년의 만남이 개울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03 소년은 징검다리를 막고 있는 소녀에게 비켜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할 만큼 소극적인 성격이다.
- 05 (가) 자신이 뽑아 준 무를 소녀가 맛이 없다고 하자 소년은 멀리 팽개쳐 버리는데, 이는 민망함을 느꼈기 때문에 보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소년은 소녀에게 꽃묵음을 만들어 주며 설레고 즐거워하고 있다. (다) 소년은 소녀가 상처를 입자 이를 걱정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라) 소년은 소녀 앞에서 송아지 등에 올라타서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 06 (라)에서는 ‘소녀의 흰 얼굴이~꽃묵음 같다.’라고 하며 소녀를 꽃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나)에서는 소년이 소녀를 위해 꽃을 꺾어 와 싱싱한 꽃만을 골라 건네고 있다.
- 07 소녀는 소년이 자신에게 주려고 꺾어 온 꽃을 골라내지 말고 모두 달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녀가 자신을 위해 여러 가지 꽃을 꺾어 온 소년의 정성에 고마워하고 있으며, 그 꽃을 아끼는 소녀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08 ‘바투’는 ‘두 대상이나 물체의 사이가 썩 가깝게’라는 뜻이다.
- 09 (다)에서 수숫단 속으로 소년이 들어오다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묵음이 우그러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소년 때문에 꽃묵음이 망가져 소녀가 속상해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10 ‘갑자기 사면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다.’, ‘삼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대변에 눈앞을 가로막는 빗줄기.’ 등을 통해서 (가)에서 인물들 주변의 분위기가 어두워졌음을 알 수 있다.
- 11 도랑의 물이 불어나 소년이 소녀를 업게 되면서 둘 사이가 더 가까워진다. 즉 ㉠은 소년과 소녀의 사이를 가깝게 해주는 계기이지 소년과 소녀가 시련을 겪게 만든 사건이 아니다.

- 13** 소년은 덕쇠 할아버지네 호두밭에서 작대기를 내리치며 호두를 몰래 따다. 호두를 다 따고 돌아오는 길에 다른 사람에게 들켜지 않으려고 그늘만 골라 깊으며 갔을 뿐, 그늘에 있는 호두를 따려고 하지는 않았다.
- 14** 소년은 소녀에게 맞보여 주고 싶은 생각에 남몰래 덕쇠 할아버지네 호두를 따다. 그리고 아버지가 윤 초시네 덕 세사에 닭을 가져다주려는 것을 알고는 소녀네에 큰 닭인 얼룩 수탉을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을 내비친다. 따라서 ‘호두’와 ‘얼룩 수탉’을 통해 소년이 소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5** 소년은 소녀를 위하는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워서 공연히 쇠잔등을 내리친 것이다.
- 17** 이 글에서 소녀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알 수 없다. 소년의 아버지가 ‘잔망스럽’다고 표현한 것은 소녀의 유언이 남달랐던 것에 대한 반응일 뿐 소녀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②, ⑤ 이 글은 부모님의 대화를 통해 소년이 소녀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난다. 이를 통해 독자는 소년이 앞으로 취할 행동이나 느낄 감정 등에 대해 상상하며 여운을 느낄 수 있다.  
 ③ 소녀를 보고 싶어 하던 소년과,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고자 하는 유언을 남긴 소녀 두 사람이 느꼈을 안타까움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18** 소녀네 집은 전답(논밭)을 다 팔고, 살던 집도 남의 손에 넘어가고, 하나 남은 증손녀인 소녀까지 죽게 되는 등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어울리는 사자성어는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인 ‘설상가상’이다.
- 오답 풀이** ① 고진감래(苦盡甘來)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이다.  
 ② 반포지효(反哺之孝)는 자식이 자란 후에 아버지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이르는 말이다.  
 ④ 금시초문(今時初聞)은 바로 지금 처음으로 들었다는 말이다.  
 ⑤ 전화위복(轉禍爲福)은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말이다.
- 19** (나)의 소녀네(윤 초시 덕)가 전답을 다 팔아 버리고 집마저 남의 손에 넘겼다는 부분에서 소녀네의 가세가 많이 기울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에서 약을 써 보지 못한 것은 소녀가 집안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 20** ‘말이 아니다’는 ‘사정, 형편’ 따위가 몹시 어렵거나 딱하다.’라는 뜻의 관용구이다.

**(3)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46쪽

개념 확인 문제

- 1 ㄷ → ㄴ → ㄱ    2 (1) × (2) ○ (3) ○    3 ④    4 자아
- 2** (1) 글을 독자와 공유하고 독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경험을 통해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3** 비유, 상징 등과 같은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개성 있게 표현하면 정서를 진솔하게 담는 글 쓰기를 할 수 있다.

지문 속

- P. 47 엘리베이터, 형벌  
 P. 48 책, 축구공, 자전거, 징크스, 할머니, 지각, 외면  
 P. 49 형벌, 마음

47~49쪽

핵심 속 & 문제로 확인

- 1 형벌    2 ⑤    3 ①    4 ③    5 ①    6 ②
- 2** 자전거를 사람처럼 비명을 지른다고 표현한 것은 의인법이다. ⑤는 깃발을 의인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은유법이 쓰였다.  
 ② 직유법이 쓰였다.  
 ③, ④에서는 비유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 3** (나)에는 아침→오후→하교 후에 글쓴이가 겪은 불행한 일이 나타나 있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제시한 것이다.
- 4** 자신이 느끼기에 시간이 늦게 가는 상황을 ‘-듯이’를 활용하여 ‘시간 여행’에 빗대어 표현한 직유법이 쓰였다.
- 5** 176개의 계단을 걸어 올라갈 때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할머니를 외면하여 마음이 무거운 것이 더 괴로우므로 할머니를 외면하는 것이 진정한 형벌이라는 뜻이다.
- 6** ‘나’는 되는 것이 없는 불행한 하루라고 생각했던 날, 작은 선행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불행이든 행복이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과정 \* 탐구

50~51쪽

- 1 (1) 엘리베이터, 할머니 (2) 경험    2 (1) 시간 (2) 불길, 집, 자전거, 불편    3 형벌, 시간 여행, 길게, 뿌듯, 계단, 불행    4 감동, 가치관

학습 활동 응용 >>>

50~51쪽

01 ⑤ 02 (1) ○ (2) × (3) × 03 시간 04 ④ 05 ④  
06 ③ 07 뿌듯 08 ⑤

- 01 세라는 옆집 할머니를 도와 뿌듯함을 느낀 경험을 글감으로 삼았다.
- 03 세라는 학원에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다가 체육복 소매가 찢어지고, 그 뒤 짐을 들고 올라가는 할머니를 발견한 경험을 썼다. 이는 자신의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 04 세라는 힘겨워하는 할머니를 모르는 척하며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 05 매일 많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해서 힘든 상황을 ‘형벌’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 06 힘들어하는 할머니를 모르는 척 외면하는 동안 마음이 너무 불편하여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져 ‘시간 여행이라도 하듯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 08 의견 교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토의나 토론의 특징이다.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쓰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알맞지 않다.

1등 친구의 만점 노트

52쪽

① 글감 ② 진술 ③ 감동 ④ 즐거움 ⑤ 깊이 ⑥ 계단  
⑦ 할머니 ⑧ 불행

기초가  
튼튼해지는  
소단원

다잡기

53~55쪽

01 ⑤ 02 ⑤ 03 형벌 04 ③ 05 ② 06 ① 07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듯 가벼웠다.’라는 표현으로 할머니를 모른 척하면서 불편했던 글쓴이의 마음이 할머니를 도우며 뿌듯함으로 바뀌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08 ④ 09 ④ 10 ④ 11 할머니를 도와드리지 않고 모르는 척할 때 불편한 마음이 들어 시간이 길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12 ⑤

- 01 (나)에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일주일째인데 앞으로 3주가 더 남았다고 하였으므로, 엘리베이터 공사는 총 4주간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글쓴이는 176개의 계단을 올라야 하는 것을 ‘형벌’에 비유할 만큼 힘겨워하고 있다.  
 ②, ④ (다)에서 글쓴이는 4층 계단을 겪어 올라가다가 자전거 손

잡이에 체육복 소매가 걸려 밑단이 뜯어지고, 자전거 손잡이에 걸린 실밥을 풀어내다가 그만 짜증이 나서 자전거를 넘어뜨린다.  
 ③ (다)에서 글쓴이는 오후에 누군가 찬 축구공에 머리를 맞았다고 하였다.

- 02 글쓴이는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나날도 괴롭고, 특히 오늘 은 아침부터 내내 안 좋은 일이 벌어져 짜증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가)~(라)에 나타난 글쓴이의 주된 심리로는 짜증스러움이 알맞다.
- 03 글쓴이는 (가)에서 12층에 사는 자신이 집에 가려면 176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이는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만큼 고통스럽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고통을 ‘형벌’에 비유하여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04 (다)에서 글쓴이는 자신이 징크스에 약하다며, 우연히 마주친 불행은 꼬리를 물고 하루 종일 들러붙는다고 하였다.
- 05 이 글은 글쓴이의 경험과 그에 따른 정서, 깨달음을 쓴 것으로, 이와 같은 글을 쓸 때에 경험이나 느낌을 압축하여 간결하게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험과 느낌이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 06 <보기>에서는 바람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한 의인법이 쓰였다. ㉠에서는 사람이 아닌 자전거가 사람처럼 비명을 질렀다고 표현하였으므로 <보기>와 같은 의인법이 쓰인 것이다.
- 08 글쓴이는 불행한 일을 겪으면 하루 종일 불행이 따라오는 것을 자신의 징크스로 여기고 있었다. 오늘 아침부터 불행한 일들이 생겨 자신의 징크스대로 오늘 하루 운이 나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를 돕고 나서 뿌듯함을 느꼈다. 이러한 경험을 한 글쓴이는 행복이든 불행이든 모두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음을 깨닫는다.
- 09 할머니의 한숨 소리는 계단을 힘겹게 오르는 할머니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는 의성어일 뿐,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갈등을 짐작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 10 글쓴이는 ㉠에서와 같이 할머니를 모르는 척하려다가도 ㉡에서는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끼고 있다. 이는 글쓴이의 내면에서 서로 다른 생각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 12 이 글에서 글쓴이는 인사를 거의 나눈 적이 없는 옆집 할머니를 도와주며 뿌듯함을 느끼고 있지만, 이를 통해 이웃과 가까이 지낼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불행과 행복이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내용이 단편에서는 대단원 문제 56~61쪽

01 ㉓ 02 ㉑ 03 ㉓ 04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낙하산  
 05 ㉓ 06 ㉓ 07 ㉑에서 원관념은 '꽃잎'이고, 보조 관념은 '팝콘'이다. '꽃잎'과 '팝콘'은 모두 작고 하얗고 가볍게 날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08 ㉑ 09 이 광고에서는 원관념인 '헌혈'을 보조 관념인 '구명조끼'에 빗댄 은유법이 쓰였는데, 두 대상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10 ㉑ 11 ㉑ 12 소녀의 뒤를 따라 달리던 소년이 소녀를 스쳐 지나 앞서 달리는 것을 보니 소년이 점차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을 알 수 있다. 13 ㉑ 14 ㉑ 15 ㉑ 16 무어 그리 안타까울 것도 서러울 것도 없었다. 17 ㉑ 18 ㉑ 19 이 소설에서 '소나기'의 상징적 의미는 짧은 사랑, 강렬한 사랑이다. 소년과 소녀의 사랑은 소녀의 죽음으로 인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금세 끝이 나 버렸기 때문이다. 20 ㉑ 21 ㉑ 22 ㉑ 23 ㉑ 24 ㉓ 25 아가가 내년에 올해보다 자라 숨결이 세질 것임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

- 01 (가)에서는 '민들레'를 활용하여 아가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민들레의 마음을, (나)에서는 '바람, 꽃잎'을 소재로 활용하여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 02 (가)에 사용된 '후후후', '후후'는 입을 동글게 오므려 내밀고 입김을 많이 내뿜는 소리 또는 모양을 의미하는 '후'를 반복한 것으로, 음성 상징어이다. 한편 (다)에서는 음성 상징어가 쓰이지 않았다.
- 03 (가)의 말하는 이 '나(민들레)'는 '내년'에 '아가'가 더 '힘차고 따뜻하게 자라' 있으리라 기대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아가'가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기를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 04 <보기>의 '내 마음은 낙엽'에서는 '내 마음'='낙엽'의 형식으로 빗대어 표현한 은유법이 쓰였다. (가)의 3연에서는 '나(민들레)'='세상에서 제일 작은 낙하산'과 같이 표현한 부분에서 은유법이 쓰였다.
- 05 <보기>와 비교할 때 (가)의 3연은 <보기>의 상황을 비유법으로 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읽는 중간마다 숨을 쉬면서 끊어 읽게 되어 내용을 음미할 수 있다. 즉 흘러가듯이 빠르게 읽히는 것은 (가)가 아니라 <보기>이다.
- 오답 풀이 ①, ②, ⑤ (가)의 3연은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을 활용한 시구로, <보기>보다 참신하고 재미있는 느낌을 주며 시적 상황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그려 낸다.
- ④ 시를 읽을 때에는 호흡을 하며 끊어 읽으면서 리듬감을 느끼고 내용을 음미할 수 있다.

- 06 (가)에서는 '후후후' 같은 똑같은 말이나 '-지'의 어미를 통한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됨으로써 운율이 형성되고 있다. ㉑은 이와 같은 반복이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므로 운율을 형성하는 부분으로 보기 어렵다.
- 08 '노래하는 봄'은 의인법으로 봄꽃 축제의 즐거운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 10 (가)의 '(소녀의)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 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와 (다)의 '(소년은)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치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1 (다)에서 소년은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자 '다행'이라고 생각하다가 소녀가 비치 않는 날이 계속되자 가슴 한구석에 허전함을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에는 개울물에 비친 검게 탄 자신의 얼굴을 보고 싫어하는데, 이는 피부가 하얀 소녀의 모습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못마땅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2 ㉑에서 소년은 소녀의 뒤를 따라 달리고 있고, ㉒에서는 소녀를 앞질러 달리고 있다. 이는 전보다 소녀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변화한 소년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 13 '개울가, 징검다리, 갈밭, 허수아비'는 시골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소재들로,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모습을 보여 주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림자'는 향토적 분위기나 인물의 순수한 면을 부각하는 소재로 볼 수 없다.
- 14 (다)에서 소녀는 소년에게 이사 가는 것이 싫어졌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집이 이사 가는 것을 숨기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소년은 자신이 뽀아 주고, 자신 있게 베어 먹은 무를 소녀가 맵고 지리다고 집어 던져 무안한 마음에 더 멀리 팽개쳐 버린다.
- ③ (라)에서 소년은 소녀에게 맛이 좋은 호두를 주려고 주머니에 호두를 담아 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녀가 이사 가기 전에 개울가로 나와 달리는 말을 못 한 것을 아쉬워한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소년은 소녀가 이사 가기 전 맛있는 호두를 선물해 주고 싶어 한다.
- ④ (가)에서 소년은 소녀 앞에서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듯이' 무를 '먼저 대강이를 한 입 베어' 우적 깨물어 먹고 있다. 이는 소녀 앞에서 자신감에 찬 모습이다.
- ⑤ (라)에서 소년은 '소녀더러 병이 좀 낫거들랑 이사 가기 전에 한번 개울가로 나와 달리는 말'을 못 해 둔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한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소년은 소녀가 이사 가기 전 소녀와 만날

약속을 잡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할 수 있다.

- 15** (나)에서는 머리 위에 와 있는 먹장구름, 우수수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바람, 삼시간에 보랏빛으로 변한 주위 등을 통해 불길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년과 소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16** <보기>는 반어에 대한 설명이다. (다)의 ‘무어 그리 안타까울 것도 서러울 것도 없었다.’에는 소녀와 헤어지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서운한 소년의 마음이 반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 17** ㉠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서늘해진 공기로 인해 시원함을 느끼는 것일 뿐, 소녀를 향한 소년의 호감과는 관련이 없다.
- 18** (가)는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허구적으로 꾸민 소설이지만, (나)는 작가의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깨달은 바를 담은 수필이다.
- 19** 소나기는 갑자기 쏟아지고 금방 그치는 비이다. 이러한 소나기는 (가)의 소년과 소녀가 나누는 사랑과 공통점을 지닌다. 소년과 소녀의 사랑이 짧고 강렬했으며, 갑자기 찾아왔다는 점, 그리고 소녀의 죽음으로 금세 끝이 났다는 점을 소나기와의 공통점으로 들 수 있다.
- 20** (나)의 글쓴이는 행복도 불행도 모두 자기 마음먹기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있다. (가)의 ‘운 초시네’는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난 상황으로, 불행은 자신의 마음에 있으므로 마음을 굳게 먹고 시련을 극복하길 바란다고 위로해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21** ㉠은 많은 계단을 오르며 느끼는 육체적 고통을, ㉡은 어려움에 처한 할머니를 모른 척하는 것에서 오는 괴로움을 의미한다.
- 22** (가)에는 ‘아가’가 민들레 홀씨를 부는 소리와 모양을 흉내내는 말인 ‘후후후’가, (나)에는 자전거가 넘어지는 소리인 ‘와장창’이 나타나 있다.
- 23** ㉠에서는 자전거를 의인화하였다. (가)에서 의인화가 나타난 부분은 민들레가 자신을 소개하는 ㉠이다.
- 24** 정서를 표현하는 글은 자신이 겪은 일에서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을 과장이나 거짓 없이 솔직하고 진솔하게 써야 한다.

## 2 숨은 의미 찾기

### (1) 추론하며 읽기

64쪽

#### 개념 확인 문제

1 (1)○(2)× 2 ㉢ 3 ① 4 이미지

- 1** (2) 추론하며 읽기를 할 때에는 단어나 문장, 시각 자료 등 글에 나타난 정보를 활용하여 글쓴이의 의도나 관점을 추론해야 한다.
- 2** 자신의 흥미와 관심, 수준에 맞는 책을 선정하여 읽는 것은 능동적으로 책을 읽는 방법에 해당한다.
- 3** 글의 내용을 추론하며 읽으면 글과 관련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므로 글을 읽는 속도는 오히려 더 느려질 수 있다.
- 4** 광고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광고에 사용된 언어 표현과 이미지에 담긴 의미를 추론해야 한다.

#### 지문 속

P. 65 지능, 창작, 요약

P. 66 질병, 자율 주행, 일자리, 사생활, 편리, 문제, 설득

#### 문제로 확인

65~66쪽

1 관점 2 (1)○(2)× 3 ㉢ 4 ④ 5 ② 6 ④ 7 (1)○  
(2)○(3)×(4)○ 8 설득

- 1** ‘경계’의 뜻은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 단속하는 것’이다. 글쓴이는 이 단어를 부제에 사용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2** (2) (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현재 존재하는 직업 가운데 상당수가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3** ㉠의 앞부분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을 때의 이점이, ㉠의 뒷부분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 제시되어 있다. ㉠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상반되므로, ㉠에는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연결하는 표지인 ‘하지만’이 들어가야 한다.
- 4** 글쓴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선부른 도입을 우려하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5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많은 양의 정보를 요약한 것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의 삶이 편리해진 경우에 해당한다.
- 6 독자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글쓴이의 관점을 추론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였다.
- 7 (3) (다)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인공지능 기술로 생기는 문제가 편리함보다 크지 않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8 (다)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이유가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의 삶 속에 들여오는 것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과정 \* 탐구

67~68쪽

1 (1) 인공지능 기술 (2) 1문단: 컴퓨터 시스템 / 2, 3문단: 편리, 반대 / 4, 5, 6문단: 사생활 침해, 책임 / 7문단: 신중, 고민 2 문제, 단어, 반대, 배경지식 3 (1) 해결, 설득 (2) 부정적 4 깊이

적용 \* 실천

69쪽

1 (1) 플라스틱 쓰레기 (2) 비닐봉지, 생태계, 스리랑카 코끼리 (3) 설득, 부정적

학습 활동 응용 >>>

67~69쪽

01 ③ 02 ② 03 ① 04 ① 05 제목 06 ④ 07 ①  
08 ④ 09 ③ 10 ④

- 01 글쓴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선부른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현대인들이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 02 글쓴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인간의 삶에 들여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글쓴이의 의견과 일치하는 관점은 ②이다.
- 03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 자체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자동화에 따른 효율성 증가로 일자리 감소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 04 글쓴이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일 뿐 인공지능 기술을 거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다.
- 05 글의 제목과 부제에 나타난 ‘인공지능 기술’, ‘도입’, ‘경계’라는 단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글쓴이의 입장을 추론할 수 있다.
- 06 ‘하지만’은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이어질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어이므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할 때의 편리한 점과 대비되는 문제점과 관련한 내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 07 글쓴이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문제점을 제시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선부른 도입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 08 이 광고에서 생태계 교란종은 인간이 만든 플라스틱 쓰레기를 의미하므로 이 광고의 내용과 의도를 추론할 때 야생에서 코끼리를 위협하는 동물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9 이 광고에서는 코끼리의 이미지는 작게, 비닐봉지로 표현된 맹수의 얼굴은 크게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희생되는 코끼리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플라스틱으로 인해 계속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면 생태계의 다른 존재들이 사라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 ▶ 오답 풀이 ①, ② 비닐봉지를 큰 맹수로 표현한 것은 인간이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 ④ 맹수의 얼굴처럼 보이도록 표현한 것은 비닐봉지이다.
  - ⑤ 코끼리를 작게 표현한 것은 플라스틱 쓰레기로 희생되는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 10 이 광고는 코끼리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죽어 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코끼리에게 플라스틱을 먹이로 주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1등 친구의 만점 노트

70쪽

① 배경지식 ② 내용 ③ 경계 ④ 질병 ⑤ 일자리 ⑥ 해결

기초  
문제는  
소단원

다잡기

71~73쪽

01 ② 02 ③ 03 요약 04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질병을 빠르게 진단하는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05 ③ 06 ⑤ 07 ① 08 ④ 09 약용 10 글쓰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독자를 설득하고 있다. 11 ④ 12 ㉠ 의도, ㉢ 내용, ㉣ 능동적 13 ④ 14 ③ 15 이 광고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고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 01 이 글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인간에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난 글이다. 따라서 글쓴이가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추론하며 읽어야 한다.
- 02 ‘우리’는 글쓴이가 독자들이 모두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사회적 문제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03 (가)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장점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면 사람처럼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창조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정보를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05 ㉠의 앞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장점이 드러나고, ㉠의 뒤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반대하는 입장이 나타나므로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이어짐을 나타내는 표지어인 ‘하지만’이다.  
**오답풀이** ① 앞의 내용에 더하여 다른 내용이 이어질 때 사용한다.  
 ②, ⑤ 앞의 내용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서 뒤의 내용이 이어질 때 사용한다.  
 ④ 앞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가 되는 내용이 이어질 때 사용한다.
- 06 (가)와 (나)에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나열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 07 (다)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생기는 문제도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방법 또한 고민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난다.
- 08 (가)에서는 ㉠에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언급하고 있다.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 고객의 습관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는 것이나, 기업이 자사의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위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 등은 모두 기업이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여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09 <보기>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위협하는 내용의 영화를 본 경험을 떠올리며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에 의해 악용되어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음을 걱정하는 글쓴이의 관점에 공감하고 있다.
- 11 이 글의 글쓴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으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을 찾아보겠다는 반응은 이 글의 이러한 의도와 거리가 먼 반응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12 추론하며 읽으면 글쓴이가 전달하려는 내용, 즉 의도와 관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독자는 추론을 위해 배경지식이나 글 속의 정보를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 13 ④는 독자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의미를 추론한 것이다. 나머지는 광고에 나타난 언어적 표현과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여 광고의 의미를 추론한 것이다.
- 14 비닐봉지 이미지, 코끼리 이미지, 플라스틱 소비량에 대한 언급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생태계 교란종’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의미하며 [A]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2) 추론하며 듣기

74쪽

개념 확인 문제

1 내용, 추론 2 ③ 3 (1)○(2)○(3)× 4 정보, 가치관

- 2 화자와 청자, 화자와 청자의 관계,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 등을 상황 맥락이라고 한다. 화자가 사용하는 문장은 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 3 (3)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은 모두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 활용되는 표현으로, 화자의 의도에 영향을 끼친다.
- 4 면담에서는 면담 대상자의 의도와 가치관을 추론하며 들어야 하는데, 이는 면담 대상자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말과 면담 대상자의 정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과정 \* 탐구

75~77쪽

- 1 ㉠ 가게 점원, 확인 ㉡ 환자, 병원, 아프지 / 상황 맥락 2 ㉢ 수락  
 ㉣ 거절 3 (1) · 표정: 화난 · 행동: 시계, 한숨 · 말투: 못마땅함  
 (2) 약속, 나무라는 4 요청 5 (1) 뒷받침하기 (2) 디지털 정보 격차, 부정적

! 핵심 키워드

- P. 75 화자, 청자, 시간, 단어, 문장  
 P. 76 목소리 크기, 얼굴 표정

적용 \* 실천

78~79쪽

- 1 (1) 아쿠아리움, 돌고래, 두뇌, 자연 방사, 사는 (2) 설득, 행복

학습 활동 응용 >>>

75~79쪽

- 01 ㉠ 02 ㉢ 03 마음, 수락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고향 19 ㉢ 20 ㉤

- 01 (나)의 화자와 청자는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 02 화자와 청자의 상황, 화자와 청자의 관계,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 등의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야 화자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 (가)의 화자는 신발 판매원으로, 신발을 신어 본 손님이 인상을 찌푸리자 신발의 착용감이 어떠한지 살피기 위해 ‘많이 불편하세요?’라고 묻고 있다.
- 04 ‘내 코가 석 자’는 내 사정이 급하고 어려워서 남을 돌볼 여유가 없다는 뜻이므로 (라)의 화자는 건우의 제안을 거절하는 의도로 말하고 있다.
- 05 ㉠의 화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청자에게 화가 나 있으므로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6 화자의 못마땅한 말투와 찌푸린 표정 등의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청자가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 화자가 화가 났음을 파악할 수 있다.
- 07 승주가 무거운 책을 들고 땀을 흘리면서 난처한 표정을 짓는 것으로 보아 민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과 같이 말했음을 알 수 있다.
- 08 승주는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든 상태라서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다. 민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과 같

이 말하고 있으므로 민호를 만나 반갑지 않은 표정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9 이 뉴스는 디지털 정보 격차가 심각하다는 문제를 알리고 있다. 즉 비대면 상황이 일상화되면서 키오스크가 보편화되고 디지털 기기의 보급도 늘었지만, 정보 취약 계층은 디지털 활용 역량 수준이 낮아 변화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전달하고 있다.
- 10 뉴스의 화제는 디지털 정보 격차인데, 기자는 디지털 정보 격차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장기화로 비대면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기자의 생각이나 관점이 드러난 부분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어르신들이 패스트푸드점에서 비대면 주문을 하는 기계를 마주하는 순간을 ‘어색한 순간’으로 표현한 것은 디지털 정보 격차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자의 관점을 강조한 것이다.  
 ③ 정보 취약 계층이 디지털 정보 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디지털 정보 격차에 관한 기자의 문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④ 정보 취약 계층과 관련한 통계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디지털 정보 격차에 관한 기자의 부정적인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⑤ 디지털 정보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제시하여 디지털 정보 격차에 대한 기자의 문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12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사용을 어려워하는 상황을 면담을 통해 보여 줌으로써 디지털 정보 격차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13 면담 대상자는 벨루가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다는 아쿠아리움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반응하며, 돌고래의 생태적 특성을 근거로 들어 벨루가가 살기에 아쿠아리움의 환경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 14 ㉤은 벨루가의 특성을 설명한 것일 뿐, 동물을 함부로 잡아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면담 대상자의 가치관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 15 면담 대상자는 동물의 인지 능력과 상태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갇힌 공간에서 정신적으로 살아남기 힘든 동물은 풀어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16 면담 대상자는 행동반경이 넓고 초음파를 내보내는 돌고래의 생태적인 특성을 근거로 하여 돌고래를 아쿠아리움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 17 면담 대상자는 돌고래에게 배에 부딪혀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해도 돌고래는 머뭇거리지 않고 바다로 나가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④는 면담 대상자의 생각과 관련이 없다.
- 18 ‘질문 4’에서 질문자가 돌고래가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자, 면담 대상자는 돌고래가 보고 싶다면 그들의 고향으로 인간이 직접 가서 만나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19 답변 내용으로 보아 면담 대상자는 인간에게는 동물을 가둘 권한이 없으며, 동물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을 생각하고 동물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 주어야 한다는 가치관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 20 면담 대상자는 돌고래의 특성을 근거로 들어 동물을 시설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

1등 친구의 **만점 노트** 80쪽

1 추론 2 내용 3 상황 맥락 4 반복 5 면담 6 정보

기초기  
소단원 다잡기 81~83쪽

01 ④ 02 ② 03 ⑤ 04 ④ 05 응, 시간 있어. 내가 도와줄게. 짐 하나 이리 쥐. 06 ③ 07 ② 08 접근성, 정보 취약 계층 09 정보 취약 계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10 ⑤ 11 행동반경, 정신적 12 ③ 13 돌고래는 갇힌 공간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동물이기 때문에 아쿠아리움(수족관)에서 풀려 주어야 한다.

- 01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와 화자가 건넨 말을 바탕으로 할 때, (1)에서 화자는 가게 점원이며 청자는 손님, (2)에서 화자는 의사이며 청자는 환자임을 알 수 있다.
- 02 (가)에서 ㉠과 ㉡에 담긴 의도가 다르게 해석되는 것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화자의 직업 등과 같은 상황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자와 청자의 성별은 ㉠과 ㉡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03 ㉢은 화자가 건우의 권유에 수락하는 의도를, ㉣은 화자가 건우의 권유를 거절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에서 화자는 자신이 누군가를 도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건우의 권유를 거절하는 것이지, 정현이가 자신의 도움을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정현이를 돕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 04 화자의 표정과 말투, 늦은 시간과 집이라는 장소 등의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 ㉤에서는 아들을 나무라는 엄마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 05 승주가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땀을 흘리는 상황에 처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승주가 민호에게 시간 있냐고 물은 것은 바쁜 일이 없다면 짐 드는 것을 도와달라는 내용을 전하고자 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할 때 민호가 승주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할 수 있는 대답에는 ‘응, 시간 있어. 내가 도와줄게. 짐 하나 이리 쥐’ 등이 있다.
- 06 정보 취약 계층의 디지털 기기 접근 정도는 일반 국민 대비 91.7%로 크게 차이나는 수준이 아니다. 정보 취약 계층의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 수준이 일반 국민 대비 60.2%로 낮은 편이다.
- 07 (나)에는 주문받는 직원도, 비대면 주문 방법을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고령층이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식당에 가서 주문하는 것을 포기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주문받는 직원이 불친절하여 고령층이 식당에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 08 (다)에서는 정보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층과 장애인이 키오스크 사용에 불편을 겪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10 돌고래가 뱅글뱅글 도는 정형화한 행동을 하는 것은 수조와 같이 작은 공간에 갇혀 있을 때 보이는 행동이다.
- 11 (가)와 (나)에서 면담 대상자는 아쿠아리움 측에서 벨루가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거죠.’라고 답한다. 또한 벨루가가 철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하는 행동반경이 넓은 동물이며 두뇌가 발달하여 갇힌 공간에서 정신적으로 살아남기 힘든 동물임을 설명한다. 이러한 면담 대상자의 말을 바탕으로 하여 면담 내용을 요약하면, 행동반경이 넓고 갇힌 공간에서 정신적으로 살아남기 힘든 동물은 아쿠아리움에서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 12 ㉢은 자신의 감금 상태에 대한 인식 능력이 없는 동물의 사례인 올챙이에 대한 설명이다.

**01** ④ **02** ⑤ **03** ③ **04** ① **05**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면 일자리 감소, 사생활 침해,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06**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선불리 우리의 삶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면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07** ③ **08** ④ **09**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10** ⑤ **11** (가) 좋아. 우리가 같이 도와주자. (나) 미안하지만 내가 바빠서 도와주기가 어려워. **12** 아들이 자신과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화자는 화가 난 표정과 못마땅한 말투로 말하고 있으므로 아들을 나무라는 의도로 말한 것이다. **13** ③ **14** 디지털 정보 격차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객관적 성격을 지닌 통계 자료를 제시하였다. **15** ⑤ **16** ⑤ **17** 인간에게는 돌고래를 수조에 가두어 돌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돌고래가 보고 싶다면 인간이 바다로 가서 돌고래를 봐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 01** (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으로 사생활 침해를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과정은 다루고 있지 않다.
- 02** (다)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이 하던 일을 자동화함으로써 많은 일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 03** (마)에서 글쓴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해결되지 않은 숙제라고 표현하고 있다. 나아가 (바)에서 글쓴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때 생기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 인공지능 기술로 생기는 문제를 기술 발전 과정에서 풀어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 04** <보기>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는 배경지식이 제시되어 있고, (바)에서 글쓴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글의 내용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이다.
- 07** 이 광고에서는 생태계 교란종은 인간이 만든 플라스틱 쓰레기이고, 이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코끼리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효과적으

로 드러내기 위해 비닐봉지를 크게, 코끼리 이미지를 작게 사용한 것이다.

- 08** ㉠에서는 한국의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뒤, 스리랑카의 코끼리가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사례를 연결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사용이 스리랑카의 코끼리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플라스틱을 먹은 스리랑카의 코끼리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지 플라스틱을 코끼리의 먹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 ② ㉠은 통계 수치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객관적 자료이나, 이는 멸종 동물 문제가 심각함을 강조하기 위해 활용된 자료는 아니다.
  - ③ ㉠은 한국의 플라스틱 소비량이 많다는 것을 보여 주고, 이것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스리랑카 코끼리의 죽음을 제시함으로써 추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스리랑카에서 사용한 플라스틱 사용량은 알 수 없으며 그것이 한국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지도 이 광고를 통해서 알 수 없다.
  - ⑤ 비닐봉지가 맹수로 표현된 것일 뿐, 스리랑카의 코끼리가 맹수의 공격을 받고 있음을 보여 주는 광고는 아니다.
- 09** 이 광고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 하나인 비닐봉지를 맹수로 표현하여 동물들이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인식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게끔 하는 것이 이 광고의 의도라고 볼 수 있다.
- 10** 화자와 청자는 구두 가게의 점원과 손님 관계이다. 신발을 신어 보는 손님의 표정이 좋지 않자, 점원인 화자는 손님에게 신발의 착용감을 확인하려는 의도에서 '많이 불편하세요?'라고 물어보고 있다.
- 11** <보기>에서 (가)는 건우의 제안을 수락하는 의미, (나)는 거절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의도를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으로 바꾸면 (가)는 '좋아. 우리가 같이 도와주자.'로, (나)는 '미안하지만 나도 바빠서 도와주기가 어려워.'로 바꿀 수 있다.
- 13** (나)에 따르면 정보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디지털 기기나 정보의 활용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 15**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는 열에 아홉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디지털 기기를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용 능력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은 그러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가), (나)의 내용으로 보아, 정보 취약 계층의 디지털 기기 이용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익숙해

질 기회를 누리지 못해 활용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16 글쓴이는 돌고래가 바다에 나가게 되면 배에 부딪혀 죽을 지도 모르지만 수조에 남는 선택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3 분류하고 활용하기

#### (1) 단어의 갈래

90쪽

##### 개념 확인 문제

- 1 (1) ○ (2) × 2 형태, 기능, 의미 3 감탄사(독립언) 4 ㉠

- (2) 품사의 분류 기준 중에서 문장 속에서 단어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나누는 것은 ‘기능’이다.
- 품사는 단어의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분류된다.
-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느낌, 부름, 대답을 나타내는 것은 감탄사이다.
- ‘달리다’, ‘먹다’ 등과 같이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며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품사는 동사이다.

##### ! 핵심 록

- P. 91 성질, 형태, 기능, 의미
- P. 93 이름, 대신, 순서, 주어, 목적어, 형태
- P. 95 움직임, 상태, 성질, 서술어, 형태, 활용
- P. 97 체언, 용언, 꾸며, 형태
- P. 99 체언, 문법적 관계, 변하지, 이다
- P. 101 대답, 독립적

##### 이해 \* 탐구

91~101쪽

#### 1 품사의 분류 기준

1 형태 변화 여부에 따른 분류

탐구 1 형태 확인 1 높다, 가다, 노래하다 / 학교, 바로, 모든

2 문장 속 기능에 따른 분류

탐구 2 몸통, 꾸며, 기능 확인 2 ㉠ 날씨, 교실 ㉡ 무척, 꽤, 매우

3 의미에 따른 분류

탐구 3 이름, 움직임, 의미 확인 3 유관순, 연필, 복도 / 걷다, 날다, 흐르다

#### 2 품사의 종류와 특성

1 명사, 대명사, 수사의 특성

탐구 1 ㉠ 사랑, ㉡ 이것, ㉢ 셋, 이름, 추상적, 사람, 사물, 장소, 수량, 순서 확인 1-1 수학, 문제, 주희, 도서관, 제하, 책 확인 1-2 우리 / 그곳, 거기 / 이것 확인 1-3 ㉠ 삼, 사, 칠 ㉡ 하나 ㉢ 첫째, 둘째, 셋째 확인 1-4 체언

2 동사, 형용사의 특성

탐구 2 움직임, 동사, 형용사 확인 2-1 ㉡ 오른다 → 오르다 ㉢ 보다 → 보다 확인 2-2 편하다, 푸르다, 아름답다 확인 2-3 용언

3 관형사, 부사의 특성

탐구 3 신발, 신발, 슬프다, 관형사, 부사 확인 3-1 ㉠ 모든 | 사람 → 명사 ㉡ 저 | 모자 → 명사 확인 3-2 ㉠ 빨리 | 달린다(달리다) → 동사 ㉡ 무척 | 아름다웠다(아름답다) → 형용사 확인 3-3 수식언

4 조사의 특성

탐구 4 가, 를, 체언, 조사, 특별한 의미 확인 4-1 ㉠ 가, 을 ㉡ 만, 도 ㉢ 는, 이고, 은, 이다 확인 4-2 관계언

5 감탄사의 특성

탐구 5 앓, 애, 응, 감탄사 확인 5-1 아, 우아 확인 5-2 독립언

##### 적용 \* 실천

102~103쪽

- (1) 동사, 부사 (2) 부사, 설명문, 시, 꾸며 (3) 수식언, 명사
- (1) (가) 깨끗하자, 명령형 (나) 띄어쓰기, 깃털같이

##### 학습 활동 응용 >>>

91~103쪽

- 01 ㉠ 02 ㉡ 03 ㉢ 04 ㉡, ㉢ 05 ㉢ 06 ㉢ 07 ㉠  
 08 ㉣ 09 문장, 형태 10 ㉤ 11 ㉠, ㉣ 12 ㉠ 13 대신  
 14 ㉡ 15 ㉣ 16 ㉤ 17 ㉣ 18 활용 19 ㉣ 20 맛있  
 다, 흐리다, 아름답다 21 ㉠, ㉢ 22 ㉤ 23 잔다, 자니, 자고  
 24 ㉠ 25 체언, 용언, 수식언 26 ㉠ 27 ㉤ 28 ㉢  
 29 ㉤ 30 ㉢ 31 ㉢ 32 무척, 덥서, 활짝 33 ㉣ 34 체  
 언, 관계, 뜻 35 ㉢ 36 가, 에서, 는, 을 37 ㉠ 이다 ㉡ 가, 에  
 서 ㉢ 에서, 를 38 는, 에게, 을 39 ㉠ 40 ㉣ 41 ㉣  
 42 감탄사, 부름 43 ㉠, ㉢ 44 맏소사, 이크 45 ㉢ 46 (1)  
 이봐 (2) 에구머니나 (3) 여보세요 47 ㉠ 48 ㉡ 49 꾸며 주는  
 (수식하는) 50 ㉤ 51 ㉡ 52 건강해라 → 건강하기를 바란다  
 53 ㉣ 54 선생님 이다 → 선생님이다 55 ㉤

- 01 품사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은 갈래이다. 품사의 분류 기준으로는 형태, 기능, 의미가 있다.

- 02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끼리 묶은 것은 ‘고구마’, ‘다섯’, ‘새로’이다. ‘양파’, ‘여덟’, ‘자동차’, ‘햄버거’도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이다.
- 03 ‘라면’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이다. ‘가다’, ‘먹다’, ‘예쁘다’, ‘자다’는 형태가 변한다.
- 04 ‘산’, ‘우리’, ‘어머니’는 항상 같은 형태로 쓰이지만, ‘크다’와 ‘없다’는 문장에서의 쓰임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
- 05 ‘실내화’는 물건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로, 문장에서 몸통 역할을 한다. ‘꽤’, ‘활짝’, ‘아주’, ‘무척’은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 06 ‘놀았다’는 문장에서 주어인 ‘나’의 움직임을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
- 07 사람이나 사물, 장소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인 명사끼리 묶은 것은 ①이다.
- 08 ‘맛있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달린다’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로, <보기>의 ‘맛있다’를 대신할 수 없다.
- 09 품사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기능)과 형태 변화 유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명사, 대명사, 수사는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 10 ‘시험’은 사람이나 사물, 장소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이라는 뜻을 가진 추상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명사)이다.
- 11 명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문장 내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 12 ‘여기’는 장소를 대신 가리키는 단어이므로 대명사에 해당한다.
- 13 대명사는 ‘나’, ‘너’, ‘우리’처럼 사람을 대신 가리키기도 하고, ‘이것’, ‘저것’, ‘여기’, ‘저기’처럼 사물이나 장소를 대신 가리키기도 한다.
- 14 ㉠은 공연장, ㉡은 입장권, ㉢은 가수를 가리킨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이다.
- 15 ㉣의 ‘둘째’는 둘째 자식을 의미하는 명사이다.
- 16 ㉠의 ‘하나’, ‘둘’, ㉡의 ‘셋’은 수사이고, ㉢의 ‘일’과 ㉣의 ‘한’은 관형사이다.
- 17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것은 명사, 대명사, 수사이다.
- 19 ‘뛰는다(뛰놀다)’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놀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이다. 나머지는 모두 형용사에 해당한다.
- 20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는 형용사이다. ‘먹다’와 ‘달리다’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 21 ㉡는 대명사, ㉣는 관형사, 부사, ㉤는 명사, 대명사, 수사에 대한 설명이다.
- 22 <보기>의 단어들은 모두 형용사이다. ㉠은 수식언, ㉡는 동사, ㉢은 감탄사, ㉣는 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 24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차례대로 ‘먹는다’, ‘먹어서’, ‘먹을’이다. 이 세 단어들의 기본형은 ‘먹다’이다.
- 27 ‘매우’는 ‘답답하다’라는 형용사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28 ‘헌’은 뒤의 ‘옷’을 꾸며 준다. ‘정말’, ‘영양’, ‘너무’는 부사, ‘요즘’은 명사이다.
- 29 ‘빨리’는 뒤에 나오는 동사 ‘달린다’를 꾸며 주므로 부사이다.
- 31 ‘정말’은 뒤에 나오는 동사 ‘기대돼’를 꾸며 준다.
- 32 ‘저녁’, ‘마늘’은 명사이고, ‘무엇’은 대명사이다.
- 33 ‘한’은 뒤에 오는 명사 ‘명’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관형사이다. ㉠은 명사, ㉡은 동사, ㉢은 수사, ㉣은 대명사이다.
- 35 조사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지만,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되기 때문에 단어로 분류된다.
- 39 이 문장에서 ‘아기’는 주어이고, 엄마 ‘손’은 목적어이다. 또한 이 문장에서 장소를 나타낼 때는 부사격 조사 ‘에’가 어울린다.
- 40 조사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이 있다.
- 41 ‘-는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이다.
- 43 ㉡는 수식언에 대한 설명이고, ㉣, ㉤는 조사에 대한 설명

이다.

- 45 '우아'는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야'는 부름을, '네'는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 47 '단단하다'는 '어떤 힘을 받아도 쉽게 그 모양이 변하거나 부서지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뜻을 지닌 형용사이다.
- 48 '감싸고'는 동사 '감싸다'의 활용형으로, '-고'는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50 '피고'는 기본형이 '피다'이고, '꽃봉오리 따위가 벌어지다.'라는 뜻의 동사이다.
- 51 '꿈꾸며'는 '꿈꾸다(꿈을 꾸는 상태에 있다.)'의 활용형으로, 동사이다.
- 52 '건강하다'는 형용사이다. 형용사는 '-해라'와 같은 명령형 표현을 쓸 수 없다.
- 53 '같이'는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54 '이다'는 명사를 서술어로 만들어 주는 서술격 조사로, 앞 명사와 붙여 써야 한다.
- 55 '행복하다'는 형용사이다. 형용사는 명령형인 '행복하세요'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와 같이 고쳐 써야 한다.

교과서 속 문제

문법 다잡기

104~105쪽

1 품사의 분류 기준

- 01 (1) 작고, 귀엽다 (2) 고양이, 정말 02 (1) 배우 (2) 그, 꽤  
03 (1)-㉠ (2)-㉢ (3)-㉡

plus 문제

01 ① | 형태가 변하지 않는 품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서술격 조사 제외)이다. ㉠, ㉢은 명사, ㉡은 조사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이다. ㉢은 형용사, ㉢은 동사이다. 02 ③ | '입고'와 '나가서'는 모두 자유의 행동(움직임)을 서술한다. 서술어는 두 개 이상의 용언이 나열될 수 있다. 03 ④ |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 '이런'은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이러한'의 의미를 지닌 관형사이다. 04 ② | '싱그럽다'는 형용사이다. ① '말랐다(마르다)', ③ '되자(되다)', '갓다(가다)', ④ '피었다(피다)', ⑤ '날아가고(날아가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2 품사의 종류와 특성

- 01 (1) 대명사 (2) 명사 (3) 명사 (4) 수사 (5) 대명사 02 (1) 형용사 (2) 동사 (3) 동사 03 (1) 옛, 그 (2) 자주, 참 04 (1) 가, 를 (2) 만 05 (1) 네 / 대답 (2) 오 / 느낌 (3) 여보세요 / 부름

plus 문제

01 ② | '근처'는 '가까운 곳'이라는 뜻의 명사이다. 02 ⑤ |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한다'는 뜻을 더해 주는 조사이다. 03 응, 그래 | '응', '그래'는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고, '우아', '야'는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그리고 '야'는 부름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1등 친구의 만점 노트

106쪽

- ① 공통 ② 형태 ③ 기능 ④ 의미 ⑤ 체언 ⑥ 관형사  
⑦ 조사 ⑧ 형용사

기초기 문제

소단원

다잡기

107~110쪽

01 ② 02 ② 03 (1) 동생, 예, 이, 는, 정말, 그것, 매우 (2) 있다, 재미있다, 아름다운 (3) 이, 정말, 매우 (4) 예, 는 04 ② 05 ⑤  
06 ② 07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인다. 08 돈가스 09 ③ 10 '자전거'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명사이다. 11 ① 12 ④ 13 ② 14 ⑤ 15 ⑤ 16 ⑤  
17 '예쁘다'는 형용사로, 형용사는 청유형 표현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18 ④ 19 ⑤ 20 문장에서 뒤에 오는 단어를 꾸며 준다. 21 ① 22 ③ 23 여보게(감탄사), 사람(명사), 이, 만, 은(조사), 하나, 물(수사), 알고, 모르는(동사), 어찌(부사) 24 ③ 25 (가)는 설명문으로, 명사와 동사, 형용사가 주로 쓰였으며 설명하고 싶은 대상의 특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01 품사 중에서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 것은 동사, 형용사이다.
- 02 <보기>를 통해 '사과'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임을 알 수 있다.
- 04 '그대'는 듣는 이를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그네'는 사물의 이름을, '도서관', '급식실'은 장소의 이름을, '윤봉길'은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 05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단어이다. 대명사는 명사, 수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 등으로 쓰여 문장의 몸통 역할을 한다.
- 06 어제의 일과 오늘의 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문장을 만들 때, 세준과 은수를 대신하는 말로는 '그들'이 알맞고, 어

제 갔던 분식집을 대신하는 말로는 ‘거기’ 또는 ‘그곳’이 알맞다.

- 08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을 찾을 때는 문장의 성분(주어, 목적어)을 파악하며 찾아야 한다.
- 09 ‘올라갔더니(올라가다)’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지호’, ‘산’, ‘다리’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아팠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10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명사라고 한다.
- 11 명사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문장 내에서는 주체의 역할을 하는데, 주로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 12 ‘동생’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사이에서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이다.
- 13 사람이나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인 수사 는 <보기>의 문장에 쓰이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명사: 집, 휴대 전화  
 ③ 동사: 두고(두다), 왔구나(오다)  
 ④ 감탄사: 아  
 ⑤ 대명사: 내(나)
- 14 ‘첫째’, ‘둘째’는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이고, 나머지는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다.
- 15 ‘황당하다’는 ‘말이나 행동 따위가 참되지 않고 터무니없다.’, ‘답답하다’는 ‘숨이 막힐 듯이 갑갑하다.’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이다.
- 16 ㄹ의 ‘웃는’은 동사 ‘웃다’가 활용한 것으로 명사 ‘하늘이’를 꾸미는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다.
- 18 ‘빨리’, ‘굉장히’, ‘매우’, ‘확’은 뒤의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인 반면, ‘저’는 뒤의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 19 ‘성큼성큼’은 ‘건다’를 수식하며 ‘다리를 잇따라 높이 들어 크게 떼어 놓는 모양’이라는 뜻을 지닌 부사이다. ‘쿵쿵’은 ‘뛰다’를 수식하며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가슴이 자꾸 세차게 뛰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이라는 뜻을 지닌 부사이다. 부사는 수식하는 용언의 뜻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전달해 준다.
- 21 ‘그래’는 대답을 나타내는 단어로,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감탄사이다. ‘나’, ‘준비’는 명사, ‘이제’는 부사, ‘똥

어’는 동사이다.

- 22 ③은 수식어인 관형사와 부사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 24 (나)는 (가)보다 부사를 많이 사용하여 대상을 더 아름답고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2) 자료를 활용하여 글 쓰기

111쪽

개념 확인 문제

- 1 ④ 2 ④ 3 책, 신문, 인터넷 4 ③

- 1 글쓰기가 모르는 내용의 자료라고 하더라도 주제와 관련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자료로 쓰일 수 있다.
- 2 자료 수집을 통해 선정한 자료를 글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글의 짜임을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는 ‘개요 작성하기’이다.
- 4 수집한 자료를 글에 활용할 때에 자료의 내용을 과장 또는 축소하거나 마음대로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과정 \* 탐구

112~118쪽

- 1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 2 직접 사진 촬영하기 3 자료 2: ×, × / 자료 3: ○, ○, ○ / 자료 4: ×, × / 자료 5: ○, ○ / 자료 6: ○, ○, ○ / 자료 3, 자료 5, 자료 6 / 자료 2, 자료 4 4 사진, 신문 기사, 순서, 책 5 독자, 소제목, 질문, 그림, 인용

! 핵심 목록

- P. 112 주제, 예상 독자
- P. 113 주제, 핵심어, 출처
- P. 115 출처, 독자
- P. 117 중심, 계획, 통합
- P. 118 출처, 왜곡

학습 활동 응용 >>>

112~118쪽

- 01 ⑤ 02 ⑤ 03 ④ 04 ② 05 ③ 06 (1) ○ (2) ×  
 07 ⑤ 08 매체 09 ② 10 ① 11 저자 12 ③ 13 ③  
 14 ⑤ 15 ① 16 ③ 17 ④ 18 ③ 19 ② 20 ⑤  
 21 ③ 22 중심 내용 23 무색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방법  
 24 ② 25 ① 26 ④

- 01 윤성이는 예상 독자가 주변 친구들인 점을 고려하여 어려운 표현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어려운 전문 용

어를 사용하겠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2** 사진 자료는 ‘자료 수집하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 03** <보기>의 예들은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그 정보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글을 쓸 때 적절한 주제들이다. 따라서 설명문이 가장 적절하다.
- 04** 계획하기 단계에서 예상 독자를 정해야 하는 이유는 계획하기 단계에서 예상 독자의 지적 수준과 흥미를 고려해야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 05** 전문가와의 질의응답(면담)은 윤성이가 선택한 자료 수집 방법이 아니다.
- 06** (2) 설문 조사는 글쓰기 자료를 수집하는 적절한 방법이지만 설문 조사의 결과를 자신의 마음대로 축소하거나 과장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 된다.
- 07** 인터넷에서 자료를 수집할 때 글쓴이가 평소에 잘 알고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주제와 관련 있고, 출처가 정확하고 믿을 만한 내용이라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09** 자료 1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쓰인 자료이다.  
**오답 풀이** ① 자료 1은 환경 전문가가 쓴 책으로, 믿을 만한 저자가 만든 자료이다.  
 ③ 자료 1은 올바르게 페트병을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글의 주제(무색 페트병 분리배출의 방법)와 관련이 높다.  
 ④ 자료 2는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의 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글의 주제(무색 페트병 분리배출의 방법)와 관련이 적다.  
 ⑤ 자료 3은 신문 기사로, 언론사에서 만든 자료이므로 믿을 만한 출처의 자료이다.
- 10** 글의 주제와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하여 수집한 자료의 활용 여부와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다.
- 11** 활용할 자료의 저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지, 또는 그의 설명이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인터넷 자료 중에는 비전문가의 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집한 자료의 저자가 분명하고 믿을 만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 12** 수집한 자료의 중요도를 판단할 때에는 저자와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만한지,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인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13** 자료 5의 출처는 공공 기관의 누리집으로, 출처가 분명하

고 신뢰할 만하다.

- 14** 비전문가가 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게시 글은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전문성을 갖춘 것이 맞는지 등을 검증하기가 어려워 신뢰할 만한 출처로 볼 수 없다.
- 15** ㄱ 주제와 관련이 깊은 시각 자료(사진, 그림 등)는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ㄴ 복잡한 절차를 글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하면 독자가 주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 16** 자료 선정하기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중요도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글에 포함할 자료를 선정한다.
- 17** 신문 기사 내용을 인용하려는 부분은 글의 처음 부분이다.
- 18** 글의 개요를 작성할 때에는 글의 구성 단계에 따른 중심 내용과 수집한 자료의 활용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완성된 글에 대한 평가는 초고를 쓴 후나 고쳐쓰기를 한 후 진행해야 한다.
- 19** 개요는 ‘간결하게 추려 낸 주요 내용’을 말하므로 개요를 작성할 때에는 글의 짜임에 들어갈 중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야 한다.
- 20** 이 글에 무색 페트병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래프 자료 등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21** 사진 자료는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무색 페트병과 무색이 아닌 페트병이 뒤섞여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 글에서는 무색 페트병끼리만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 23** 이 글은 무색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 25** [A]는 ‘잘 배출하는 법’ 중에서 무색 페트병 배출 순서를 그림으로 제시하여 독자에게 해당 내용을 더 쉽게 전달하고 있다.
- 26** 글에서 자료를 인용할 때는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원저자가 쓴 내용을 임의로 바꾸거나 축소 또는 왜곡해서는 안 된다.

1등 친구의 **만점 노트**

119쪽

- ① 주제 ② 출처 ③ 독자 ④ 목적 ⑤ 자료 ⑥ 저자  
 ⑦ 개요 ⑧ 배치 ⑨ 새로운 출처

기초  
문제는

소단원

다잡기

120~123쪽

01 ⑤ 02 ① 03 ③ 04 인터넷에서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출처가 정확하고 믿을 만한 내용을 다루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05 ① 주제, ① 출처 06 ① 07 자료 1 08 올바른 분리배출 순서를 한눈에 보여 주는 그림을 제시하여 독자가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09 ① 10 ① 11 ③ 12 분리배출된 무색 페트병에 오염 물질이 남아 있으면 같이 배출된 다른 페트병도 못 쓰게 되기 때문이다. 13 ① 14 ③ 15 ②

- 01 윤성이는 무색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주제로 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설명문은 객관적인 정보를 다른 대상에게 알려 주는 글로, 윤성이가 글을 쓰는 목적과 부합한다.
- 02 (나)에서 책이나 신문에 실린 자료는 믿을 만하다고 하였으므로 ①은 적절하다.
- 03 (다)에서는 글의 주제와 관련 있는 자료를 핵심어를 활용하여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 05 수집한 자료의 중요도 판단 기준에는 글의 주제와의 관련성, 저자와 출처의 정확성과 신뢰성, 독자들의 이해 정도가 있다.
- 06 (나)의 자료 1, 자료 3은 책과 신문의 내용이므로, 도서관, 서점 등에서 책과 신문을 찾아본 것임을 알 수 있다. 자료 2는 기획재정부의 누리집이므로, 공공 기관의 누리집을 찾아봤음을 알 수 있다. 자료 4는 개인 블로그의 내용이므로, 인터넷 검색을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 07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자료는 책이며, 그 내용과 저자가 분명하고 믿을 만한지를 평가하고 있으므로 '자료 1'에 대한 평가이다.
- 09 (다)의 '내용물이 남지~단아 배출한다.' 부분을 통해 무색 페트병을 배출하는 순서가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10 (나)에서는 사진 자료를 제시하여 무색 페트병이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않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진 자료는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 ② (나)에 청소를 끝낸 교실에서 무색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으므로 알맞지 않다.
  - ③ (나)에서 무색 페트병이 재활용되어 옷, 가방 등의 재료로 쓰인다는 부분에서 물건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지만 재활용이 안 되는 물건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
  - ④ (나)에는 질문의 형식이 활용되지 않았다.

⑤ (나)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정하고 있지 않고, 우리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생각을 유도하고 있지도 않다.

- 11 <보기>의 자료에 따르면 분리배출된 무색 페트병은 고급 원사의 원료가 된다. 글쓴이는 이 자료를 독자의 수준에 맞는 단어와 표현으로 수정하여 ㉠과 같이 제시하였다.
- 13 (가)에 따르면 유색 페트병은 재생 원료를 오염시킨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페트병 중, 유색 페트병은 재생 원료가 될 수 없다.
- 14 ㉠에는 그림 자료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한다. 그림 자료는 무색 페트병을 배출하는 순서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 15 (다)에서는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하여 분리배출을 잘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내용이 단원에서는 대단원

문제

124~129쪽

01 ① 02 ③ 03 ② 04 ⑤ 05 ③ 06 ⑤ 07 공통점: 두 단어는 형태가 변하는 단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차이점: '예쁘다'는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날아간다'는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08 ② 09 ③ 10 ① 11 ④ 12 ⑤ 13 '매우'는 용언(좋아한다)을, '새'는 체언(옷)을 수식하여 문장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14 ③ 15 ③ 16 ⑤ 17 ④ 18 ⑤ 19 ② 20 ④ 21 잘못된 부분: 처음처럼, 잘못된 이유: 조사인 '처럼'은 앞말 '처음'에 붙여 써야 하는데 붙여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22 ② 23 ④ 24 ④ 25 핵심어를 활용하여야 주제와 관련 있는 자료를 빠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26 ①, ⑤ 27 ② 28 '무색 페트병 사용의 문제점'은 윤성이가 쓰려고 하는 글의 주제인 무색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 29 ⑤ 30 ③ 31 ④ 32 ① 33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라는 책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직접 인용했기 때문에 큰따옴표를 사용해서 인용한 것이다.

- 01 관계언인 조사는 문장에서 홀로 쓰이지 못하고 주로 체언 뒤에 붙어 쓰인다.
- 02 '하는지'는 '하다'의 활용형으로,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보기>의 단어 중,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해당하는 단어는 '없다'이다.
- 04 '그'는 대명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명사이다.
- 05 '오르다(올랐다)'는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아래에서 위쪽

으로 움직여 가다.'라는 뜻을, '불다(분다)'는 '바람이 일어나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뜻을, '만나다'는 '누군가 가거나 와서 둘이 서로 마주 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이다.

**오답 풀이** ㄷ. '느리다'는 '어떤 동작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 06** '따뜻하고'와 '달콤했다'는 형용사이다.  
**오답 풀이** ①의 '핀', ②의 '받았다', ③의 '자느', ④의 '쳐다보았다'는 동사이다.
- 08** '모든'은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이고, '매우', '무척', '너무', '전혀'는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이다.
- 09** ㉠은 대명사로 사람이나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 가리킨다. ㉡은 부사로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은 동사로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며 주어의 움직임을 설명한다.
- 10** '깨끗하다'는 형용사이다. <보기>의 ㉠은 용언을 명령형과 청유형으로 활용한 것인데, 형용사는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표현할 수 없다.
- 11** 빈칸에는 명사 '옷'을 수식하는 관형사가 들어가야 한다.
- 12** 동사와 형용사는 모두 형태 변화가 가능하다.
- 14** '뺨질뺨질'은 '몹시 난처하거나 힘들 때 땀을 흘리는 모양'을 의미하는 부사이다. 부사는 주로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 준다.
- 15** 밑줄 친 단어들은 조사로, 조사는 단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문장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기도 한다.
- 16** ㄷ에서는 조사 '만'이 쓰였으므로 강아지가 좋아하는 대상은 '지우' 한 명으로 한정된다.
- 17** '물론'은 '말할 것도 없이'라는 의미의 부사이고, 나머지는 감탄사이다.
- 18** 그곳(대명사), 을(조사), 여기(대명사), 로(조사), 가져오는(동사), 것(명사), 은(조사), 거의(부사), 불가능하다(형용사)
- 19** 감탄사는 말하는 이의 느낌이나 부름, 대답을 나타내는 단어를 말한다. ㉠은 부름을 나타내는 단어, ㉡은 느낌을 나타내는 단어, ㉢은 대답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은 대명사(너)에 조사(도)가 결합한 것이다.

- 20** ④에서 '만큼'은 조사이므로 체언 뒤에 붙여 써야 한다.
- 22** 윤성이는 학급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신문에 글을 투고하려고 한다.
- 23**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 수집을 할 때에는 찾고자 하는 자료의 내용과 관련 있는 단어를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 윤성이는 무색 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므로 ④가 적절하다.
- 24** (다)에는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의 출처가 정확하고 믿을 만한 내용을 다루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26** ① 자료 3은 재활용된 무색 페트병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한 신문의 내용으로, '처음' 부분에 제시하여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활용할 수 있다. ⑤ 자료 2는 여러 가지 재질이 섞인 물건은 재활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글의 주제인 무색 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방법과 관련이 없으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알맞다.  
**오답 풀이** ② 자료 1은 무색 페트병을 배출하는 순서를 한눈에 알기 쉽게 보여 주는 자료가 아니며 무색 페트병 배출 순서와 관련한 내용은 '중간' 부분에 해당한다.  
③ 자료 1은 색을 기준으로 분리하는 방법과 관련이 없다.  
④ 자료 3은 무색 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지 못한 예와 관련이 없다. 또한 '끝' 부분에서는 무색 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무색 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지 못한 예를 제시하는 것은 알맞지 않다.
- 27** 새로운 자료인 무색 페트병 재활용 마크는 무색 페트병을 플라스틱 속에서 손쉽게 골라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마크를 배치하기에 알맞은 부분은 ㉠이다.
- 28** 개요는 글의 주제를 중심으로 통일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 29** 무색 페트병을 배출하는 순서를 보여 주는 그림, 사진 등의 시각 자료는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 30** (가)는 플라스틱 속에서 무색 페트병을 골라내는 방법을 알려 준다. (가)에 따르면 '무색 페트'라고 적힌 삼각형 마크가 있는 것, 색이 없는 것, 생수병이나 우유병, 음료수병으로 쓰인 것 등이 재활용할 수 있는 무색 페트병이다.
- 31** (나)에는 무색 페트병 배출 순서가 나타나 있다. 먼저 무색 페트병에 내용물이 남지 않도록 잘 씻고, 라벨을 떼고, 압축하고,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한다.

32 질문의 형식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 독자가 능동적으로 글을 읽도록 유도한다.

#### 4 성장하고 변화하고

##### (1) 문학과 성장

132쪽

개념 확인 문제  
 1 고민, 성장 2 (1)○(2)○ 3 ① 4 (1)○(2)×

- 1 <보기>는 성장 소설에 대한 설명이다. 성장 소설은 주인공이 어른이 되기까지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형상화한 것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주인공의 갈등이 중심을 이룬다.
- 3 <보기>는 소설의 갈등 종류 중 인물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겪는 내적 갈등에 대한 설명이다.
- 4 (2)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주인공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이다.

#### 지문 목록

- P. 134 닭대가리, 용머리, 창피
- P. 136 백석, 시집
- P. 137 구절, 내린다, 나타샤
- P. 138 미국, 소련, 러시아, 닭대가리
- P. 139 닭, 당부, 이름, 시집

133~139쪽

핵심 키워드 & 문제로 확인  
 1 ⑤ 2 용머리 3 ④ 4 ⑤ 5 ③ 6 ㉠ 걱정(고민) ⑥ 시집  
 7 ④ 8 질문 9 ③ 10 ⑤ 11 ⑤ 12 부끄럽게(참피하게)  
 13 ② 14 (1)○(2)×

- 2 (가)에서 '나'는 '닭대가리'라는 별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 이는 아빠의 넉넉한 성품을 존경하며 자신의 아빠가 '용머 리'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 3 쓰기 쉬운 '이'씨가 부러웠던 아빠는 '백'씨가 쓰기 복잡하 다고 생각해 아들이 이름이라도 쓰기 편하라고 한 글자 이 름을 지어 주었다.
- 4 '나'는 자신의 이름으로 인해 선생님의 관심을 받은 것이 좋은 일인지, 오해를 사게 돼 나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

워 기분이 이상했다.

- 5 선생님은 '나'의 아빠도 시인 백석을 좋아해 '나'의 이름을 백석이라고 지었다고 생각한다.
- 6 '나'는 선생님이 자신에게 백석 시 읽는 것을 시킬까 봐 걱 정하고 있다. 이러한 걱정을 아빠에게 말하자 아빠는 '나' 의 걱정을 덜어 주려고 백석의 시집을 하나 사오라고 흔쾌 히 말하고 있다.
- 7 아들이 학교에서 백석 시를 외워야 하는 것을 걱정하자, (마)에서 아빠는 이러한 아들의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 백 석의 시집을 펼쳐 보며 아들과 함께 시를 낭송하고 있다.
- 8 ㉠에는 백석 시의 내용은 모르지만, '나'의 질문에 답해 주 기 위해 책을 얼굴 가까이 끌어당겨 '나'가 질문한 시구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아빠의 모습이 드러난다.
- 9 아들 앞에서 자신의 무지로 인해 망신을 당한 아빠는 '닭 대가리'라는 별명을 들었을 때 평소처럼 웃어넘기지 못하 고,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 10 백석이 집안의 반대로 나타샤와 결혼하지 못했다고 생각 한 인물은 아버지이다.  
오답 풀이 ① '나타샤'는 '나'와 아빠가 백석 시를 읽다가 알게 된 이 름으로, 백석 시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② (바)에서 아빠는 '나타샤'가 '미국 여자'이며 백석이 좋아하는 여자 라고 '나'에게 설명한다.  
 ③ (사)에서 엄마는 '나타샤'가 '소련 여자' 같다고 말한다.  
 ④ (사)에서 건어물집 아저씨는 '나타샤'가 '러시아 여자 이름'이라 고 말한다.
- 11 '나'는 건어물집 아저씨의 놀림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 하는 아빠의 뒷모습이 안타깝고 낯설어서 아빠 얼굴을 보 는 것을 쑥스러워한다. 이는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는 심경 은 아니다.
- 12 아빠는 자신의 무지로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서 '나'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한다. 이때 아빠의 목소리가 떨리는데, 이는 자신의 무지함과 부족함을 자식에게 드러 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 13 아빠는 '나'에게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을 설명하며 의기 소침했던 자신의 모습을 털어 내고자 하였을 것이다.
- 14 (2) (차)에서 아빠가 '나'에게 한 말을 미루어 볼 때, 아빠는 답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다. 아빠가 답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감상 \* 탐구

140~141쪽

- 1 사랑, 너그러운 2 (1) 용 (2) 소련, 러시아, 의기소침, 힘 (3) 시 읽기, 자부심 3 이해, 성장

적용 \* 실천

142~145쪽

- 1 (1) 도움, 수영, 혼자, 의지, 반대편, 보조 도구 (2) 도움, 수영, 용기 (3) 스스로 2 공감, 반성

학습 활동 응용 >>>

140~145쪽

- 01 ④ 02 ① 03 ⑤ 04 ① 05 ④ 06 ④ 07 ④  
08 ⑤ 09 ② 10 ① 11 ① 12 ④ 13 ③ 14 ④  
15 ① 16 반대편 수영장 벽 17 ⑤ 18 성장 19 ⑤  
20 ④ 21 ③

- 01 <보기>에서는 시장 아저씨들이 짓궂게 놀려도 화내지 않고 같이 농담으로 유쾌하게 대꾸하며 넘기는 아빠의 모습이 드러난다.
- 02 아빠의 별명은 닭집 이름 때문에 ‘닭대가리’이다. ‘나’는 자신의 별명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아빠가 용머리처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랑스러워한다.
- 03 소련과 러시아를 구별하지 못해 건어물집 아저씨에게 놀림을 당하고는 의기소침해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나’는 자랑스럽게만 여기던 아빠의 다른 면모를 알게 된다.
- 04 의기소침했던 아빠가 기운 내서 자신이 잘 아는 닭에 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자신도 아빠에게 힘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 05 ‘나’는 아빠에게 기운을 드리고 싶었지만 아빠에게도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과 그것 때문에 ‘나’의 앞에서 보인 서글픈 모습이 낯설어서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다.
- 06 이 글은 성장 소설로, 독자는 주인공의 미성숙했던 모습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고 공감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다.
- 07 작가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상처를 받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인생의 다양한 면을 알게 된다는 점에서 주인공인 ‘나’가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 08 물리 치료사가 허리를 치료하려면 수영을 해 보라고 해서 수영장에 왔으나 제희는 수영하는 방법을 모르고 물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 09 이 글에서는 제희가 수영을 처음 시작할 때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수영 언니의 도움으로 조금씩 이겨 내는 경험이 드러나 있다. ②는 제희의 상황과 반대의 경험이다.
- 10 제희는 물을 두려워하고 있다. ㉠에서는 수영을 잘 못하는데 물이 깊어져 가라앉을까 봐 걱정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 11 수영 언니는 수영을 못하는 제희를 위해 친절하게 수영을 가르쳐 주고 있다.
- 12 수영 언니는 보조 도구를 키판에서 풀 부이로 바꾸어 가며 조금씩 단계를 높여 제희가 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13 보조 도구를 조금씩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에 성공하며 실력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 언니에게 의지하고 있다.
- 14 수영 언니가 준 도구를 많이 누르지도 않고 한 바퀴 돈 제희는 자신의 수영 실력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뿌듯해한다.
- 15 수영 언니는 매일매일 노력하면 느는 것이 수영 실력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와 의미가 통하는 것은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①이다.
- 오답 풀이** ② 자그마한 나쁜 일도 자주 해서 버릇이 되면 나중에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말이다.  
③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라는 말이다.  
④ 형편이나 사정이 전에 비하여 나아진 사람이 지난날의 미천하거나 어렵던 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어떤 상황에 합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 우연히 좋은 결과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16 수영 언니의 도움 없이, 보조 도구도 없이 혼자 수영해서 다다른 곳이 ‘반대편 수영장 벽’이다. 이는 제희가 드디어 혼자 힘으로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17 외적으로는 보조 도구 없이 혼자 수영할 수 있게 되는 성장, 내적으로는 수영 언니 없이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달으며 자립하는 성장을 이루었다.
- 18 이 글은 제희가 수영 언니의 도움을 받고, 나중에는 스스로 노력하여 홀로서기를 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 19 제희는 수영 언니나 보조 도구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수영할 것을 결심하고, 결국 혼자 힘으로 수영장 반대편에 도착한다.
- 20 수영 언니의 도움으로 제희가 노력하고 용기를 내 성장하여 좋은 결과를 이뤄 낼 수 있었다. 제희의 성장에는 타인의 도움과 친절이 긍정적인 발판이 되었기 때문에 ④와 같은 반응은 알맞지 않다.
- 21 인물의 성장을 보며 자신이 겪는 갈등의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지만, 작품 속 인물의 성장을 본다고 해서 모든 갈등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완벽한 해결 방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등 친구의 만점 노트** 146쪽

① 백석   ② 소련   ③ 러시아   ④ 당부   ⑤ 별명   ⑥ 성장통  
⑦ 바람직   ⑧ 위로

**소단원** 다잡기 147~150쪽

01 ②   02 ③   03 아빠는 백씨 성은 쓰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아들이 이름이라도 쉽게 쓰라고 '나'의 이름을 '석'이라는 한 글자로 지었다.   04 용머리   05 ④   06 ③   07 ④   08 ①   09 ④  
10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의기소침한 마음을 털어내고 자신에게 실망했을 아들에게 기운 내라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11 ③   12 물은 좀 정직한 게 있거든.   13 (1) 제희의 수영 실력이 성장하였다. (2) 제희는 주체적으로 삶을 살게 된 성장을 이루었다.  
14 ②

- 01 이 글의 갈래는 소설로, 실제로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글이다.  
**오답 풀이** ① 수필, ③ 설명문, ④ 시, ⑤ 논설문의 특성이다.
- 02 '닭대가리'라는 별명은 상대를 알잡아 보는 매우 기분 나쁠 수 있는 별명인데도 이를 관대하고 유머스럽게 받아 넘기는 아빠는 여유가 있고 너그러운 성향의 사람이다.
- 05 이 글에 등장하는 '나'가 자신의 아버지가 백석의 시를 읽다가 겪게 되는 사건을 '나'의 시선에서 전달하고 있다.
- 06 ㉠에는 엄마의 말이 틀리고 자신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여 우쭐해져서 어깨를 쭉 펴고 큰소리를 내는 아빠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아빠가 자존심 상해하는 모습은 (나)의 '아빠는 "꼬끼오." 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아빠 얼굴은 발갛게 달아올랐다.'에 나타나 있다.

- 07 평소에는 '닭대가리'라는 별명을 들으면 '꼬끼오'라고 답하며 웃던 아빠가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아무 말 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아빠의 모습에 아빠의 감정이 많이 상했음을 눈치챈 엄마와 건어물집 아저씨는 '나타샤'로 논쟁을 벌인 자리를 피했다.
- 08 아빠를 자랑스럽고 훌륭하게 여기던 '나'는 시 읽기 사건 이후 아빠의 부족한 면모를 알게 된다. 그리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아빠의 의기소침한 모습을 낯설게 느끼며 아빠의 얼굴을 보는 것을 쑥스러워한다.
- 09 (다)의 '팔을 번쩍 들어 올린 아빠는 정말 컸다. 우리 대거리 닭집은 닭 모가지를 깃대처럼 쥐고 흔드는 우리 아빠로 가득 찼다.' 부분을 통해 '나'가 여전히 성실하게 열심히 살 아온 아빠의 삶을 멋지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보다 똑똑하고 뛰어난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닫는 '나'의 모습은 (가)~(다)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11 (다)에서 수영 언니는 자신도 과거에 제희처럼 수영을 잘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제희는 그런 수영 언니의 말에 과거와 달리 현재는 이렇게 수영을 잘하느냐고 답하고 있을 뿐,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12 (다)에서 수영 언니는 제희에게 자신도 과거에 수영을 잘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물은 정직하기 때문에 열심히 수영 연습을 하면서 노력하면 수영을 잘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 14 ㉠에서 제희는 자신이 헤엄쳐 수영장 레인을 한 바퀴 돌았다는 것을 수영 언니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 ㉡에서 제희는 작은 도구로는 물에 뜨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에서 제희는 자신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수영장 반대편에 왔다는 사실이 놀랍고 뿌듯할 것이다.

**(2) 생활 속의 다양한 매체** 151쪽

**개념 확인 문제**

1 (1) × (2) ○   2 ③   3 생산자, 수용자   4 대중 매체

- 1 (1) 주로 개인이 제작한 방송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매체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라고 한다.
- 2 개인 인터넷 방송은 비전문적인 개인도 제작할 수 있고, 개인이 기획, 촬영, 진행 등 여러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사용자가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기가 비교적 쉽다.

3 개인 인터넷 방송은 대중 매체와 다르게 수용자와 생산자의 소통이 자유로운 편이다.

4 대중 매체는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한꺼번에 전달하고, 세대와 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과정 탐구** 152~156쪽

1 1 ㉠ 분담, ㉡ 개인 2 (1) 생산자 (2) 관심사 3 (1) 상호명  
4 (1) ㉠ 게시판, 간접적 ㉡ 댓글, 직접적

2 1 (1) 정보, 공유 (2) 사회, 정보 2 (1) 관심 (2) 무분별하게, 비판적

**핵심 록록**

P. 152 전문가, 개인  
P. 153 대중, 개인  
P. 154 사회적 규범, 규제  
P. 155 어려움, 쉬움

**학습 활동 응용 >>>** 152~156쪽

01 ④ 02 개인 인터넷 방송 03 ③ 04 ② 05 ① 06 (1)  
○ (2) × (3) ○ (4) × 07 ㉠ 08 ④ 09 ④ 10 ⑤ 11 ③  
12 ② 13 ⑤ 14 ⑤

01 대중 매체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제작한다. 일반 개인은 개인 인터넷 방송의 생산자이지 대중 매체의 생산자가 아니다.

03 대중 매체는 전문가 집단이 모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제작한다.

- 오답 풀이** ① 매체에서 정보를 얻는 사람을 수용자라고 한다.  
② 최근 등장한 개인 인터넷 방송은 비전문가 개인도 생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와 수용자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④ 매체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만드는 사람을 생산자라고 한다.  
⑤ 사람들에게 정보, 지식 등을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하는 모든 것을 가르켜 매체라고 한다.

04 대중 매체는 대중을 고려하므로 누구나 좋아할 만한 소재를 주로 다룬다.

06 (2) 생산자 개인의 관심사가 방송 소재를 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개인 인터넷 방송이다.  
(4) 비전문가인 개인이 직접 자신의 취미를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달하는 매체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다.

07 <보기>는 대중 매체에 적용되는 규제로,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이다.

08 개인 인터넷 방송은 대중 매체와 달리 규제를 덜 받는다. 이에 상호명 언급이 가능한 편이며 표현 역시 대중 매체보다 자유롭다.

10 매체 내용이 모두 생산된 이후에 수용자가 매체 내용의 수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주로 대중 매체의 소통 방식 특성이다.

11 대중 매체는 이미 만들어진 내용을 정해진 방송 편성 시간에 송출하므로 방송 이후에 간접적이거나 제한적으로 수용자와 생산자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12 대중 매체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얻기 쉽고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정보나 수용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기 쉽다.

13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대중 매체가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이나 가치관을 전달할 수 있다.

14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거짓되거나 과장되게 다룬 내용은 없는지 비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등 친구의 만점 노트** 157쪽

① 대량 ② 전문가 ③ 어려움 ④ 개인 ⑤ 규제 ⑥ 쉬움  
⑦ 정보 ⑧ 비판적

**소단원** 다잡기 158~159쪽

01 ② 02 ⑤ 03 대중 매체는 대중 누구나 두루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를 선정한다. 04 ④ 05 ③ 06 ⑤ 07 대중 매체가 대중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사회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 매체는 올바른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08 ①

01 (가)에는 전문가들이 분담하여 방송 내용을 제작하는 대중 매체의 특성이, (라)에는 주로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소재를 방송으로 만든다는 대중 매체의 특성이 나타나 있다.  
**오답 풀이** (나)에는 규제를 적게 받는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이, (다)에는 개인이 혼자서 기획, 촬영, 편집 등을 모두 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이, (마)에는 생산자 개인의 관심이나 취향을 소재로 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이 드러난다.

- 02 개인 인터넷 방송은 대중 매체와 달리 방송법의 규제가 강하지 않아서 상호명이나 기타 표현이 자유로운 편이다.
- 04 전문가들이 자신의 분야를 담당하여 분업 형태로 제작하는 것은 대중 매체의 제작 방식이다.
- 05 방송법, 사회적 규범 등의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는 것은 대중 매체이다.
- 06 (가)와 같은 대중 매체는 내용 생산 이후에 수용자가 의견을 내기 때문에 수용자가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이에 비해 (나)와 같은 개인 인터넷 방송은 방송 생산 과정에 수용자의 직접적, 실시간 참여가 용이하다.
- 08 (라)는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개인 인터넷 방송의 영향력이 커져서 이를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릴 경우 피해자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내용이 난이도별로는 대단원 문제 160~164쪽

01 ⑤ 02 ② 03 아빠가 시인 백석을 좋아해서 아들 이름을 백석이라고 지었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자신에게 시를 외워 보라고 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이다. 04 ① 05 ④ 06 아빠는 자신이 '러시아'와 '소련'을 구별하지 못해 건어물집 아저씨에게 놀림을 당한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07 ③ 08 ③ 09 '나'는 닭에 관해 전문적인 아빠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10 ④ 11 ⑤ 12 ② 13 외적 요인은 제희가 수영 연습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해 준 수영 언니의 도움이다. 내적 요인은 꾸준한 제희의 노력, 혼자 수영하기 위해 낸 제희의 용기이다. 14 ② 15 ⑤ 16 ① 17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전달하는 정보가 거짓되거나 과장된 내용은 없는지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수용해야 한다.

- 01 (나)에서 아빠는 '나'가 태어나던 해부터 대거리 닭집을 했음을 알 수 있을 뿐 ⑤에 대한 질문의 답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 02 (가)에서 아빠가 자신의 가게 이름을 '큰거리 닭집'이 아닌 '대거리 닭집'으로 한 것은 큰 대(大) 자를 쓰면 유식해 보일 것 같아서라고 했다. 따라서 아빠가 사람들에게 유식해 보이는 것을 경계한 것은 아니다.
- 04 이 글은 '나'가 주인공인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자신과 자신의 아빠가 겪은 일을 서술하고 있다.
- 05 이 글은 아빠가 잘 모르는 것이 있고 아빠에게도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성장하는 '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07 이 글은 소설로, 인물의 갈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 속에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 파악하면서 주제를 이해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⑤ 주장하는 글, ② 시, ④ 설명문을 읽는 방법이다.

- 08 아빠의 의기소침해진 모습에 당황한 '나'는 통닭을 먹고 싶지 않았다.
- 10 (다)의 '아빠 입은 무거운 닭 바구니를 들 때처럼 짝 물려 있었지만, 모가지를 잡힌 닭들은 날아갈 듯 가쁜해 보였다. 고개를 치켜들고, 팔을 번쩍 들어 올린 아빠는 정말 컸다.'라는 표현을 통해 ④와 같이 지시할 수 있다.
- 11 수영 언니는 제희에게 킥판과 풀 부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 주며 제희가 단계별로 수영을 익힐 수 있도록 친절하게 도와주었다.
- 12 (가)에서 제희는 수영 언니의 도움을 경계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며 수영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에서는 제희가 용기를 내어 물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 내며 혼자 수영하는 것에 성공한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제희가 낯선 사람과 상황을 경계한다고 볼 수 없다.
- 14 대중 매체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역할을 분담하여 방송을 제작한다. 누구나 쉽게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개인 인터넷 방송이다.
- 15 (나), (다)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다. ⑤는 대중 매체의 특징이다.
- 16 개인 인터넷 방송은 생산자의 관심사를 반영한 소재로 방송을 만들기 때문에, 수용자는 자신과 관심 분야가 비슷한 생산자의 방송을 보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17 (라)를 통해 개인 인터넷 방송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과 허위 정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 인터넷 방송이 전달하는 정보가 믿을 만한 것인지 검증하지 않고 전달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 1 마음을 표현하는 법

### (1) 운율과 비유

시험에 꼭 나오는 **시문 알맹이 분석**

4쪽

- 내용 분석 성장
- 운율 리듬감
- 비유적 표현 ① 직유법
- 비유적 표현 ② 은유법
- 비유적 표현 ③ 의인법

필수 문제로 **소단원 완전 정복**

5쪽

**01 ⑤ 02 ① 03 ① 04 ④ 05** 시구: 내 이름은 민들레야, 효과: 표현하려는 대상이 생생하게 전달된다. / 재미있고 참신한 느낌을 준다. /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01** ‘민들레’가 흙씨를 부는 ‘아가’에게 다정한 시선으로 말을 건네고 있다.
- 02** ㄱ. ‘털방울 같지’, ‘낙하산 되어 날아가지’, ‘자라 있을 테지’ 등에서 동일한 어미 ‘-지’의 반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운율이 형성된다. ㄴ. ‘후후후’, ‘후후’ 등 입을 오르려 입김을 부는 소리와 모양을 나타내는 음성 상징어 ‘후’의 반복을 통해 운율이 형성된다.
- 03** ‘나’(민들레)를 ‘털방울 같지’라며 ‘털방울’에 직접적으로 빗댄 직유법이 사용되었으나, ‘털방울’ 자체를 사람처럼 표현하지는 않았다.
- 04** <보기>는 ‘A는 B이다’의 형식으로 표현하려는 대상(원관념)과 빗대어 표현하는 대상(보조 관념)을 연결한 은유법이 사용된 표현이다. 이와 같은 표현법이 사용된 것은 ‘나’(민들레)를 ‘낙하산’에 빗댄 ㉠이다.
- 05** <보기>는 의인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에 해당하는 시구는 ‘내 이름은 민들레야’이다. 의인법은 표현하려는 대상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독자가 재미있고 참신한 느낌을 받게 하며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지닌다.

### (2) 상징

시험에 꼭 나오는 **시문 알맹이 분석**

6~7쪽

- ‘조약돌’의 의미 조약돌, 관심
- ‘발돋움’의 의미 관심
- 일그러진 ‘꽃’의 상징성 소녀, 불행
- ‘분홍 스웨터’의 의미 추억
- 소년의 심리 부끄러움
- 소녀의 유언과 심정 유언, 추억

필수 문제로 **소단원 완전 정복**

8~9쪽

**01 ④ 02 ③ 03 ⑤ 04** 보랏빛은 어두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앞으로 소녀에게 불길한 일이 생길 것임을 암시한다. **05 ⑤ 06** 대추, 소년을 위한 소녀의 마음을 의미한다. **07 ① 08 ③**

- 01** (가)에서 ‘갈꽃’은 소녀의 싱그럽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나)에서 ‘꽃’은 비를 맞고 떠는 소녀의 연약한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
- 02** 소년은 갈밭 속으로 사라진 소녀가 나타날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렸고, 발돋움을 하여 소녀를 찾으려고 애쓴다. 발돋움한 소년의 행동에서 소년이 소녀에게 관심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03** [A]와 <보기> 모두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표현, 시적인 느낌의 서술로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 05** 윤 초시네는 가세가 기울어 많던 전답을 다 팔아 버린 뒤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게 된 상황이다. 따라서 고향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비싼 값에 팔아 이익을 남겼다고 보기 어렵다.
- 06** <보기>에서는 서술자를 좋아하는 상대가 감자를 챙겨 와서 서술자에게 건네주고 있다. 따라서 ‘감자’는 서술자를 향한 상대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가)에서 소녀는 소년을 위한 마음으로 ‘대추’를 건네주므로 ‘대추’는 ‘감자’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07** (가)에서 소녀는 소년과 헤어질 생각에 쓸쓸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모습을 바탕으로 할 때 소녀는 소년과 함께한 날 진흙물이 든 스웨터를 보며 행복해한다고 짐작할 수 있으므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이다.
- 08** 소년과 소녀 사이의 일이나 소년을 향한 소녀의 마음을 어른들이 눈치채도록 할 만한 내용은 소녀의 유언에 담겨 있지 않다.

(3) 정서를 표현하는 글 쓰기

시험에 꼭 나오는 **지문 알맹이 분석**

10쪽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 할머니, 뿌듯함  
 글쓴이의 인식 변화 형벌, 불행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 평범, 비유적

필수 문제로 **소단원 완전 정복**

11쪽

01 ⑤ 02 ① 03 ④ 04 글쓴이는 행복이든 불행이든 모두 마음먹기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다.

- 01 이 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은 바를 진솔하게 풀어 쓴 것으로, 주장과 근거를 찾아 타당성을 판단하며 읽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02 (나)에서 '나'는 물통의 물이 새서 책이 젖고, 축구공에 맞고, 체육복이 뜯기는 등 안 좋은 일이 연이어 발생하였으므로, 어려운 일이나 불행이 겹쳐서 생긴다는 뜻인 ①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언 발을 못이려고 오줌을 누어 봤자 효력이 별로 없다는 뜻으로,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애써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남보다 뒤떨어져 어찌할 도리가 없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강한 자들끼리 싸우는 통에 아무 상관도 없는 약한 자가 중간에 끼어 피해를 입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03 (라)에서 글쓴이는 할머니를 못 본 척하는 것이 '더한 형벌'이라고 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할머니의 짐을 들어 드리면서 오늘의 불행이 끝났다고 하는 것에서 글쓴이가 뿌듯함을 느끼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04 유난히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하루가 작은 선행으로 인해 오히려 뿌듯한 기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글쓴이는 행복과 불행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다.

실력을 완성하는 **대단원 완전 정복**

12~16쪽

01 ⑤ 02 ④ 03 ① 04 그대를 보고 싶어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강조된다. 05 ⑤ 06 ⑤ 07 ③ 08 (가)의 '나'와 (나)의 '소년'은 모두 대상을 정답고 따스하게 대하는 태도를 보인다. 09 ② 10 ① 11 ② 12 '꽃뭍음'은 소년의 눈에 비친 소녀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소녀와 동일시된다. 13 ④ 14 ③ 15 ③ 16 직유법을 활용하여 마음이 불편하여 할머니를 외면하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17 ③ 18 ④ 19 • 표현 방법: 의인법 • 효과: 참신한 느낌을 주고, 아가를 향한 민들레의 마음이 잘 느껴지게 한다. 20 ③

- 01 (가)와 (나)는 모두 비슷한 소리나 어미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둘 다 리듬감이 느껴진다.
- 02 <보기>에는 '봄'과 '꽃잎'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 쓰였다. ㉠ 역시 '나무'가 사람처럼 춤을 춘다고 표현하였다.
- 03 (가)와 같은 시는 중간중간 숨을 쉬며 끊어 읽게 되어 리듬감이 느껴지고 천천히 내용을 음미할 수 있어 시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보기>는 시를 줄글로 바꾸어 쓴 것으로, 줄글은 쭉 붙여서 흘러가듯이 빠르게 읽힌다.
- 05 (가)는 시로, 동일한 소리와 단어 등의 반복을 통해 운율이 형성되어 읽을 때 리듬감이 느껴진다. 이와 달리 (나)는 소설로, 자유로운 문장으로 쓰인 산문이기 때문에 읽을 때 리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 06 소녀는 싱싱한 꽃이지만 골라 건넨 소년의 정성에 고마워하고 있으며, 그 꽃을 아끼는 마음에 ㉠과 같이 말하고 있다.
- 07 바위에 앉자고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나란히 걸터앉은 만큼 소년과 소녀의 사이가 가까워졌으므로, ㉡의 상황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의 '이심전심'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유구무언(有口無言):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  
 ② 오매불망(寤寐不忘): 자나 깨나 잊지 못함.  
 ④ 상부상조(相扶相助): 서로서로 도움.  
 ⑤ 희로애락(喜怒哀樂):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
- 08 (가)의 '나'(민들레)는 '아가'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나)의 '소년'은 '소녀'를 위해 꽃을 꺾어 싱싱한 꽃만 건네는 것으로 보아 '소녀'를 정답게 대하고 있다.

- 09 (나)에는 비를 맞은 소녀가 입술이 파래지고 어깨를 떠는 장면이 나타난다. 이는 앞으로 소녀의 건강이나 운명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한다.
- 10 ㉠은 소녀의 행동으로, 소년의 태도가 점차 적극적으로 변화한 것을 보여 주는 장면이 아니다.
- 11 소년은 송아지를 보러 가자고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부끄러워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12 이 작품에서 ‘꽃’, ‘꽃뭉음’은 소녀 또는 소녀의 운명과 동일시된다.
- 13 소년은 소녀를 생각하는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들리지 않으려고 괜히 외양간으로 자리를 피했고, (나)의 글쓴이는 할머니를 돕지 않으려고 할머니를 모른 척하는 불편한 상황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돼’라고 생각하며 그 상황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 14 소년은 아버지가 소녀네 집에 닭을 한 마리 가져다주려는 것을 알고, 소녀를 더 챙겨 주고 싶은 마음에 이왕이면 큰 닭을 가지고 갈 것을 권한다.
- 15 ㉡는 소년이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들킬까 봐 괜스레 탄청을 피우는 모습이고, ㉢는 글쓴이가 할머니를 모른 척하고 싶어서 자전거를 묶는 척 연기를 하는 것이다.
- 17 (나)의 글쓴이는 할머니를 돕지 않으려던 마음을 바꾸어 할머니를 돕기로 다짐하면서 자신의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신적으로 한층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 18 <보기>는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은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 직유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20 (나)는 정서를 표현한 글로, 이러한 글을 쓸 때에는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바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년도 문제로  
**만점 올리드** 17쪽

- 01 ② | ②에는 같거나 비슷한 소리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 02 ② | ②의 ‘내 마음은 낙엽’에 은유법이 쓰였다.  
▶ 오답 풀이 ③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에 직유법이 쓰였다.  
 ④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표현하는 활유법이 쓰였다.  
 ⑤ 표면적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 듯하나 실은 그 속에 진 실이나 교훈이 담긴 역설법이 쓰였다.
- 03 ④ | ‘사군자’는 오랫동안 동양의 문화적 배경에서 형성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관습적 상징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②, ③ 원형적 상징에 해당한다.  
 ⑤ 개인적 상징에 해당한다.
- 04 ① |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법을 정하는 단계는 ‘글감 구체화하기’ 단계이다.

**2** **숨은 의미 찾기**

**(1) 추론하며 읽기**

시험에 꼭 나오는 **지문 알맹이 분석** 18~19쪽

인공지능의 뜻과 활용 지능, 컴퓨터 시스템  
 인공지능 기술의 이점 의료, 자동차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문제점 ① 효율성, 일자리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문제점 ② 개인 정보, 사생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문제점 ③ 오진, 책임  
 글쓴이의 생각 위험, 도입

필수 문제로 **소단원 완전 정복** 20~21쪽

- 01 ④ 02 ③ 03 ④ 04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사람이 하던 일을 자동화하면 많은 일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많은 부분에서 사람의 작업이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 05 ②, ④ 06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미리 마련하지 않으면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07 ④ 08 ④

**01** 추론하며 읽을 때에는 독자가 자신의 배경지식과 글에 나타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글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미루어 생각하며 읽는다.  
 ② 글의 제목과 부제에 담긴 의미 모두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③ 단어와 문장에 나타난 정보를 활용하며 읽는다.  
 ⑤ 글에 숨겨진 글쓴이의 관점과 의도를 살펴야 하는 것이지, 독자의 관점과 비교하여 더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은 아니다.

**02** (다)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선부른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이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 그러한 목소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 것은 아니다.

**03** 글쓴이는 ㉠에서 사람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반대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 뒤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나 답과 관련된 내용이 올 것이므로 가장 알맞게 추론한 것은 ④이다.

**05** 인공지능의 오작동으로 인한 오진이나 사고, 악용 문제 등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가정하여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독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있다.

**07** <보기>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배경지식으로 활용하면 (다)는 생태계를 위협하고 코끼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내용이 숨겨져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08** 스리랑카 코끼리는 플라스틱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인간이 스리랑카 코끼리에게 위협받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은 (다)의 내용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2) 추론하며 듣기**

시험에 꼭 나오는 **지문 알맹이 분석**

22쪽

- 상황 맥락 화자, 청자, 시간, 장소  
 (가)와 (나)의 화자의 의도 상황 맥락  
 언어적 표현 단어, 문장  
 (가)와 (나)의 화자의 의도 언어적 표현, 수락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속도, 말투, 표정  
 ㉠처럼 말한 화자의 의도 약속, 나무라는

필수 문제로 **소단원 완전 정복**

23쪽

- 01** ④ **02** 승주는 민호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려는 의도로 물어본 것이므로, 민호는 '내가 좀 도와줄까?'라고 대답할 수 있다.  
**03** ③

**01** (나)의 기자는 정보 취약 계층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문제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02** 승주는 책을 들고 계단을 오르며 힘든 표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승주는 민호에게 책을 드는 것을 도와달라는 의도로 말을 건네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03** 뉴스에서 기자가 자주 반복하는 단어나 강조하는 말, 면담이나 실태 조사 결과 등 보도에서 활용한 자료를 살펴보면 기자의 의도나 관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기자의 보도에 진행자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는 기자의 의도나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과 관련이 없다.

실력을 완성하는 **대단원 완전 정복**

24~28쪽

- 01** ⑤ **02** ④ **03** ④ **04** ③ **05** ㉠ 자동화 ㉡ 직업(일자리)  
**06** ② **07** ① **08** ④ **09** 비닐봉지 같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닐봉지로 맹수의 얼굴을 표현한 것이다. **10** ⑤ **11** ③ **12** (1) 못마땅함. (2) 화난 표정 (3)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게임을 하는 것을 나무라기 위한 말이다. **13** ③ **14** ⑤ **15** ⑤ **16** ② **17** ③ **18** 디지털 정보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보 취약 계층의 디지털 기기 이용 능력이 일반 국민보다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19** ⑤ **20** ①  
**21** ⑤ **22** 좁은 수조 안에서 돌고래가 초음파를 내보내면 초음파가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기 때문에 돌고래는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나는 병에 걸리는 것이다.

**01** (마)에서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업무의 자동화로 현재 존재하는 많은 직업 가운데 상당수가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02** 이 글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점을 먼저 제시한 후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발전 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03** <보기>는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와 관련이 있다. 글쓴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쓴 것인데, 이러한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④와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 04 의료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질병을 이전보다 빠르게 진단하고 있다고 했으나, 이를 통해 고치기 어려운 질병의 완치가 가능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
- 06 ②는 (나)에서 글쓴이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이 추론에 활용한 단서는 독자의 배경지식이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⑤ 글에 나타난 단어, 문장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의도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 07 (가)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과정에서 개인 정보의 유출과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소통 단절에 대한 배경지식은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08 이 광고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와 비슷한 관점은 ④이다.
- 10 (가)의 (2)는 병원에서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상황이다.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많이 불편하세요?’라고 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환자는 자신의 통증 정도나 아픈 부위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진료 시간을 궁금해하는 것은 상황 맥락에 어울리지 않는다.
- 11 ‘내 코가 석 자’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남을 도와주기 어렵다는 의미로, 정현이를 같이 도와주기 어렵다는 의도를 표현한 말이다.
- 13 승주는 몇 시인지 묻는 것이 아니라 민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는 의도로 ‘시간 있어?’라고 묻은 것이므로, 시각을 확인하는 것은 알맞지 않다.
- 14 (마)는 금융 서비스의 비대면화 확대로 인해 정보 취약 계층이 우대 금리 등 실질적인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 15 이 글은 무인 시스템의 빠른 확대로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이 부족한 정보 취약 계층이 불편을 겪고 있음을 중심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는 기자의 의도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⑤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 16 기자의 보도로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가)에서 진행자의 말을 통해 정보 취약 계층이 무인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게 된 배경(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길어짐)을 제시하고 있다.
- 17 (나)에서 어른이 식당에서 비대면 주문을 하는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과 그 어른을 인터뷰한 내용을 제시하여 디지털 정보 격차가 심각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정보 격차가 심각하다는 기자의 생각을 뒷받침한다.

- 19 면담 대상자는 벨루가의 생태적 특성을 들어 수족관이 돌고래에게 적합한 환경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질문 내용으로는 ⑤가 알맞다.
- 20 ㉠은 돌고래의 정형화된 행동이 수족관의 좁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 상황임을 돌고래의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 있다. 수조에서 뱅글뱅글 도는 것은 자연 속에서 돌고래가 보이는 행동이 아니다.
- 21 ‘동물 행동학’은 동물의 인지 능력과 상태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 ㉡은 이러한 학문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동물의 인지 능력과 상태에 따라 동물이 살아갈 공간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⑤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년도 문제로 만점 올리드 29쪽

- 01 ② | 다윈이 도움이 필요한 윤아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고자 말을 건네자 이에 대해 윤아가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 02 ④ | <보기>의 면담 대상자는 올챙이는 인간에게 억류됐음을 인식하는 동물이 아니지만, 돌고래는 올챙이와는 대조적으로 고등 인식 능력이 있어서 자신의 상태를 인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동물들의 인지 능력과 상태에 따라 자유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면담 대상자의 말을 바르게 이해한 반응은 ④이다.  
**오답 풀이** ① 돌고래와 올챙이의 인식 능력을 비교하고 있을 뿐, 돌고래의 처지를 올챙이의 처지로 비유하여 설명하지는 않았다.  
 ② 올챙이와 돌고래의 인식 능력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③ 올챙이는 어항에 옮겨 놓아도 자신이 억류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올챙이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동물의 인식 능력이 뛰어난을 설명한다는 것은 알맞지 않다.  
 ⑤ 올챙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인식 능력을 갖추지 못한 존재이다.

공간 모의평가

30~34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② 05 공통적으로 쓰인 비유적 표현: 의인법 / (가)의 해당하는 부분: 내 이름은 민들레야 / (나)의 해당하는 부분: 나무가 춤을 추면 06 ① 07 ④ 08 ⑤ 09 덕쇠 할아버지네 호두를 몰래 딴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이다. 10 ② 11 ④ 12 ③ 13 ① 14 옆집 할머니를 도와드리지 않고 외면하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글쓴이의 불편한 마음을 효과적이고 개성 있게 표현하였다. 15 ⑤ 16 ④ 17 ② 18 ⑤ 19 ① 20 글쓴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 21 ④ 22 ③ 23 키오스크가 고령층이 사용하기에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키오스크가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글씨는 작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24 ① 25 면담 대상자는 돌고래는 수족관에 가두면 안 되는 동물임을 주장하기 위해 ㉠과 같이 말했다.

- 01 (가)와 (나)에는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글쓴이의 경험을 쓴 것인지는 알 수 없다.
- 02 (가)는 아가의 성장을 기쁘게 여기는 마음을 민들레의 정겹고 따스한 시선으로 그려 내고 있는 시이다.
- 03 <보기>의 표현을 직유법을 활용하여 [A]와 같이 바꾸어 쓰면 입술을 내밀고 있는 아가의 모습이 보다 더 생생하게 전달된다.
- 04 ‘후후후’, ‘후후’의 반복은 시에 운율감을 형성하여 읽을 때 통일감과 생동감,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 05 (가), (나)에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방식이 공통적으로 쓰였다.
- 06 소년은 (나)에서 자신이 하는 행동을 숨어서 엿본 소녀 때문에 놀라 달려가다가 물속에 빠진다. ‘몸을 가릴 데가 있어 뚫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메밀밭으로 향한 소년의 모습에서 소년이 창피함을 느끼고 있음이 나타난다.
- 07 소년과 소녀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것은 우연한 계기로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제목 ‘소나기’는 갑자기 세차게 내리는 비처럼 갑자기 찾아온 사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08 (가)에서 소녀는 소년에게 던지려고 물속에서 하얀 조약돌을 집어낸다. 이는 그러고는 소년에게 ‘이 바보’라고 말하며 조약돌을 던지고 갈밭 사잇길로 달려간다. 이러한 모습으로 미루어 볼 때, 소녀는 소년에 대한 관심의 표현으로 조약돌을 던졌다고 할 수 있다.

- 10 원두막의 기둥이 기울어 있는 것은 원두막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보여 주는 것일 뿐, 소녀에 대한 소년의 감정을 짐작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 11 이 글은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로, 이러한 글은 사소하고 일상적인 경험에서 글감을 찾아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비유와 상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쓴다.
- 12 (다)에 드러난 의성어는 ‘휴우, 으휴우!’이다. 이는 ‘나’의 속마음이 아닌 할머니의 가쁜 숨소리이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나’는 그동안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편하게 이용해 왔는데,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해서 ‘고통의 계단’을 올라야 한다고 했으므로 ‘나’가 엘리베이터 공사로 불편함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 ② (나)에서 ‘나’는 오늘 아침에 가방 속 물통에 물이 새고, 오후에는 축구공에 머리를 맞았으며 지금은 체육복이 뜯어졌다고 하였으므로, ‘나’가 연달아 불행스러운 일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 ④ (라)에서 ‘나’는 자신의 징크스가 ‘내 마음 안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라)에서 ‘나’는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난 후의 뿌듯한 마음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듯 가벼웠다’라고 직유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 13 글쓴이는 생각지 못했던 작은 선행을 통해 스스로 만든 징크스를 극복하고 행복이든 불행이든 마음먹기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 14 양심의 가책을 느껴 불편한 마음을 직유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 15 ‘나’는 176개의 계단을 오르는 것보다 짐을 들고 계단을 힘들게 올라가는 할머니를 모른 채하는 상황이 더 괴롭다며 이를 176계단의 형벌보다 ‘더한 형벌’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 16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는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함을 설득하려는 글쓴이의 의도, 관점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단서도 아니다.
- 17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자의 사소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배경지식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글쓴이의 생각과 관련된다.
- 18 [A] 앞에서는 의료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또’라는 표지어 뒤로 [A]가 오므로 [A]에는 다른 분야에 인공지능 기

술을 도입한 상황이 제시되는 것이 알맞다.

- 19 ㉠ 앞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반대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묻고 있고, ㉡ 뒤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반대하는 첫 번째 까닭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알맞은 표지어는 ‘먼저’이다.
- 21 (다)는 면담의 일부로, 질문자는 전문가와 면담을 하고 있다. 질문자와 면담 대상자의 친분 여부는 면담 내용을 추론하는 데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 22 (가)의 화자와 청자는 의사와 환자 관계로 병원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이다.
- 24 면담 대상자는 먼 거리를 이동하는 돌고래를 작은 곳에 놓아 두고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었다고 하는 아쿠아리움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면담 대상자의 의견을 드러내려면 ㉠에는 ‘자격’이 들어가야 한다.

### 3 분류하고 활용하기

#### (1) 단어의 갈래

시험에 꼭 나오는 **지문 알맹이 분석** 36~37쪽

- 체언의 특징 **없음**, 주어, 목적어, 이름, 대신, 수량, 순서
- 용언의 특징 **변함**, 서술어, 움직임, 상태, 성질
- 수식언의 특징 **없음**, 꾸며 주는, 체언, 용언
- 관계언의 특징 **없음**, 관계, 뜻
- 감탄사의 특징 **없음**, 독립적, 부름, 대답

필수 문제로 **소단원 완전 정복** 38~39쪽

- 01 ④    02 ②, ③, ④    03 ③    04 ③    05 ②, ④    06 ②
- 07 ②, ③    08 ⑤    09 ④    10 ①    11 ③    12 ①    13 ②
- 14 ③    15 ④    16 <보기>에 쓰인 부사: 잘, 아주, 빨리 / 공통적인 특성: 부사는 주로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 준다.

- 01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은 단어의 갈래이다.
- 02 품사의 분류 기준은 형태, 기능, 의미이다.
- 03 ‘우리’는 대명사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이다.

- 04 ‘수학, 문제, 주희, 도서관, 제하, 책’은 명사이고, ‘나, 너, 여’는 대명사이다. ‘너무’는 부사이다.
- 05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인 명사는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와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로 나눌 수 있다. ‘나무’, ‘얼굴’, ‘이순신’은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이며 ‘행복’, ‘평화’는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 06 체언은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명사, 대명사, 수사를 포함한다.
- 07 ‘① 맑다, ④ 빠르다, ⑤ 맛있겠다’는 형용사이다.
- 08 용언은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 역할을 한다.
- 09 ㉠은 장소에 해당하므로 ‘그곳’, ‘거기’ 등으로 바꿀 수 있다. ‘저것’은 사물을 대신 가리키는 단어다.
- 010 ‘활짝’은 동사 ‘피었다(피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오답 풀이** ②, ③은 관형사, ④, ⑤는 부사이다.
- 11 ‘내려와서’는 ‘내려오다’가 기본형이고, 과거형으로 쓰일 때 ‘내려왔다’가 된다.
- 12 ‘푸르다’, ‘아름답다’, ‘편하다’는 모두 형용사이다.
- 13 ‘이’, ‘새’, ‘모든’, ‘한’은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두루’는 ‘볼(보다)’, ‘함부로’는 ‘대해서(대하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14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품사는 형용사이다.  
**오답 풀이** ① ‘옛’은 관형사, ‘매우’는 부사이다.  
② ‘이것’은 대명사, ‘학교’는 명사이다.  
④ ‘먹다’는 동사, ‘건강하다’는 형용사이다.  
⑤ ‘자다’는 동사, ‘행복하다’는 형용사이다.
- 15 감탄사는 부름이나 대답, 느낌을 나타내며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여 독립언이라고 한다. 또한 활용을 하지 않아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2) 자료를 활용하여 글 쓰기

시험에 꼭 나오는 **지문 알맹이 분석** 40쪽

-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할 점 정보, 자료, 쉽게, 출처
-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세척, 압축
- 글쓴이의 당부 품질, 재활용, 올바르게

필수 문제로 **소단원 완전 정복**

41쪽

01 ⑤ 02 ⑤ 03 글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다. 04 ④

- 01 개요 쓰기는 내용을 조직해서 실제 글을 쓰기 위한 과정 가운데 하나이다. 선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구조에 맞게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작성하면서 개요를 짜면 효과적으로 글을 쓸 수 있다.
- 02 ㉠에서는 무색 페트병이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들어가 있는 교실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과 관련하여 활용할 만한 자료로 알맞은 것은 ⑤이다.
- 03 매체 자료(그림, 사진 등)를 활용하면 설명하는 내용을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04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는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인지, 저자와 출처는 분명하고 믿을 만한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지 등을 판단하여 글에 활용할 만한 것을 선정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에는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중 주제와 관련한 중요도를 살펴서 글에 쓸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  
 ②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는 자료의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며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③ 선정한 여러 자료는 글의 개요에 맞게 적절히 통합하고 배치해야 한다.  
 ⑤ 쓰기 윤리를 지키기 위해 활용할 자료의 출처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정리해 두어야 한다.

실력을 완성하는 **대단원 완전 정복**

42~46쪽

01 ②, ④ 02 ① 03 ③ 04 ② 05 ⑤ 06 ⑤ 07 <보기>의 단어들은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주로 하며 문장에서 쓰일 때 그 형태가 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08 ① 09 ④ 10 ② 11 ② 12 ③ 13 ① 14 ② 15 ③ 16 ⑤ 17 ③ 18 ④ 19 ④ 20 ⑤ 21 ② 22 ③ 23 잘못된 까닭: '은 커녕'은 하나의 조사이므로 앞 단어에 모두 붙여 써야 한다. / 바르게 고친 문장: 돈은커녕 상품도 받지 못했어요. 24 ③ 25 ① 26 ② 27 ③ 28 ④ 29 ③ 30 자료의 출처에 따라 글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지며,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쓰기 윤리를 어기게 되므로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 01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은 단어의 갈래이다.

- 02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서술격 조사 제외)가 있다.
- 03 '천'은 뒤에 오는 명사 '냥'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오답 풀이** ① '굴뚝'은 명사이다.  
 ② '여든'은 수사로 쓰였다.  
 ④ '사공'은 명사이다.  
 ⑤ '그'는 대명사이다.
- 04 '힘들다', '즐겁다'는 형용사이다.  
**오답 풀이** ①의 '들어오다', ③의 '만나다', ④의 '먹다', ⑤의 '눅다'는 동사이다.
- 05 ⑤는 동사에 대한 설명이며, <보기>의 문장에는 동사가 없다.  
**오답 풀이** ①은 부사로, <보기>의 '무척'이 해당한다.  
 ②는 조사로, <보기>의 '는', '이', '같이', '가'가 해당한다.  
 ③은 명사로, <보기>의 '미래', '얼굴', '보름달', '키'가 해당한다.  
 ④는 형용사로, <보기>의 '하얗고', '크다'가 해당한다.
- 06 '응'은 대답을 나타내는 단어로, 감탄사이다.
- 07 제시된 단어 중, '먹다', '자다'는 동사이고 '느리다', '빠르다'는 형용사이다. 동사와 형용사를 묶어 용언이라고 하는데, 용언은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형태가 변한다.
- 08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는 형용사이다. ①의 '포근하다'는 형용사이다.  
**오답 풀이** ②의 '달려간대(달려가다)', ③의 '반짝이다', ④의 '날아간대(날아가다)', ⑤의 '내려온대(내려오다)'는 동사이다.
- 09 ㉠은 '학교 근처 공원'을 가리킨다.
- 10 ②에서 '이'라는 관계언 하나가 쓰였으며, 나머지 문장에서는 관계언이 두 개씩 쓰였다.  
**오답 풀이** ①에서는 '가', '은'이, ③에서는 '은', '를'이 ④에서는 '은', '을'이, ⑤에서는 '이', '은'이 쓰였다.
- 11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은 모두 동사이다. ②가 동사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 풀이** ①은 부사, ③은 감탄사, ④는 형용사, ⑤는 명사에 대한 설명이다.
- 12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품사는 동사와 형용사이다. '크다'는 형용사, '만들다'는 동사이다.
- 13 '단단하다'는 '어떤 힘을 받아도 쉽게 그 모양이 변하거나

부서지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뜻의 형용사이다.  
㉠~㉣은 모두 동사이다.

- 14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조사이고,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 15 '활짝'은 부사, '모든'은 관형사로서 뒤에 오는 말을 꾸며 주는 수식어이다.
- 16 '처음'은 '시간상으로 맨 앞'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 17 <보기>에는 단어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주는 조사가 들어가야 한다.
- 18 ④에는 대명사 '거기'가 쓰였다.  
 오답풀이 ①의 '그', ②의 '저', ③의 '이'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⑤ '하나', '둘'은 수사이다.
- 19 ㉡은 '행동이나 사태 따위가 가벼우면서도 은근하고 천천히'라는 뜻을 지닌 부사이다.
- 20 '① 마저, ② 께서, ③ 까지, ④ 조차'는 모두 조사이지만, ⑤의 '못'은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 21 ②는 명사이다.  
 오답풀이 ①은 관형사, ③, ④, ⑤는 부사이다.
- 22 누구를 부르는 말이라고 해서 모두 감탄사인 것은 아니다. '태형아'는 명사인 '태형'과 조사 '아' 두 단어가 결합한 것이기에 감탄사가 아니다.
- 24 (가)는 글쓰기를 계획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이 글을 쓰는 목적, 주제, 예상 독자를 떠올려 보고 글의 유형을 정해야 한다.
- 25 (나)의 자료 1~자료 5 중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 실태를 설명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없다.
- 26 공공 기관의 자료라고 해도 글의 주제인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자료에서 제외해야 한다.
- 27 무색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독자들이 이해해서 분리배출을 잘하자는 것이 글쓴이가 의도하는 바이다.
- 28 (라)에서는 무색 페트병을 버릴 때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이유와 무색 페트병 배출 순서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소재목이 들어가기에 알맞은 곳은 (라) 앞

이다.

- 29 (라)는 무색 페트병을 올바르게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분리배출 순서를 한눈에 보여 주는 그림이 가장 어울린다.
- 30 자료의 출처에 따라 글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지며,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쓰기 윤리를 어기게 되므로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고난도 문제로 만점 올리고 47쪽

**01** ② | <보기>의 단어는 명사, 수사, 대명사에 해당하며, 이 셋을 체언이라고 한다. 체언은 단어의 형태가 변하지 않고 문장에서 몸통의 역할을 한다.  
 오답풀이 ① 감탄사, ③ 용언, ④ 수사, ⑤ 관계언에 대한 설명이다.

**02** ③ | '고운'은 '모양, 생김새, 행동거지 따위가 산뜻하고 아름답다.'라는 뜻을 지닌 형용사이다.

**03** ④ |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는 글의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인지, 저자와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만한 것인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인지를 판단하여 중요한 자료를 선정한 후 활용해야 한다.

**04** ③ |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적는 것을 직접 인용이라고 하고, 직접 인용을 할 때는 큰따옴표를 사용하여 글쓴이가 자료에서 어느 부분을 가져왔는지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간접 인용은 자료의 내용을 글쓴이가 자신의 말로 풀어 쓰거나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4 성장하고 변화하고**

**(1) 문학과 성장**

시험에 꼭 나오는 **지문 알맹이 분석** 48~49쪽

소재의 의미 닭대가리, 스트레스, 용머리, 존경심  
 '나'의 이름을 '석'이라고 지은 이유 쉽게, 사랑  
 인물의 심리 닭대가리, 의기소침  
 아빠에 대한 '나'의 생각 변화 용머리, 부족함  
 '나'의 성장 훌륭한, 성장

필수 문제로 **소단원 완전 정복**

50~51쪽

01 ③ 02 ② 03 ③ 04 사람들이 닭대가리라는 별명을 부르며 스트레스를 풀고 자신을 질투하지 않아 좋다는 아빠의 모습을 볼 때, 아빠는 타인을 너그럽고 여유 있게 대하는 성품을 지닌 인물이다.  
05 ③ 06 ⑤ 07 ④ 08 '나'는 아빠의 목소리가 떨리고 의기 소침해진 모습을 보고 속이 상했기 때문에 엄마가 주는 통닭을 마다했다.

- 01 어린 소년인 '나'가 자신의 아빠는 '용머리' 같다고 하며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 02 '나'는 자신의 이름에 특별한 뜻이 없는 것 같아서 창피했다가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4학년이 되어 새로 만난 담임 선생님이 천재 시인 백석과 이름이 같으며 관심을 주자 '나'는 이러한 상황이 좋은 것인지 싫은 것인지 몰라 얼떨떨해하고 있다.
- 03 사람들이 닭대가리라는 별명을 부르며 스트레스를 풀고 시기, 질투로 나쁜 소문을 내지 않아 좋다는 아빠의 넓은 마음을 보며 '나'는 아빠가 닭대가리라는 별명과는 어울리지 않고, '용머리'라고 생각한다.
- 05 아빠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나'에게 보여 당황해하는 모습이 (가)에 제시될 뿐, ③과 같은 장면은 제시되지 않는다.
- 06 닭을 도막 내면서 마음을 가다듬은 아빠는 뒤를 돌아 '나'를 쳐다보며 '나'가 얼마나 상심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 줘야 할지 고민했을 것이다. 아빠는 무지함을 감추지 않았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 07 [A]에서 아빠는 자신이 잘 아는 것을 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풀이 죽은 아들을 위해서 아빠도 자신의 분야에서만큼은 잘 아는 부분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생활 속의 다양한 매체

시험에 꼭 나오는 **지문 알맹이 분석**

52쪽

대중 매체의 영향력 정보, 경험  
개인 인터넷 방송의 영향력 취향, 영향력, 개인적

필수 문제로 **소단원 완전 정복**

53쪽

01 ① 02 ① 03 ④ 04 (바)의 규제를 받는 매체: 대중 매체 / 규제를 받는 이유: 대중 매체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 01 (가)는 대중 매체, (나)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다. (가)는 (나)에 비해 다수의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 (나)는 생산자가 관심이 있는 소재를 주로 다룬다.
- 02 (다)에서는 생산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소재로 영상의 전 과정을 전담하여 영상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 ①은 대중 매체의 특성이다.
- 03 (라), (마)에서는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사생활 침해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④는 대중 매체의 특징이다.
- 04 대중 매체는 방송법의 규제를 받아 상호를 노출할 수 없는 등 내용의 공공성에 제약이 많다.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하여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력을 완성하는 **대단원 완전 정복**

54~58쪽

01 ⑤ 02 ④ 03 ② 04 '나'는 자신의 이름에 특별한 뜻이 없는 것 같아 창피했다가 선생님에게 멋진 이름이라고 칭찬을 받아 관심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별이 가지 않아 기분이 이상했다.  
05 ③ 06 ③ 07 ③ 08 ⑤ 09 ④ 10 ㉠에서 아빠는 부끄럽고 창피함을 느꼈다. 아빠가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해 자식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놀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11 ② 12 ④ 13 ④ 14 ⑤ 15 ② 16 ⑤ 17 ③ 18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대중 매체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피해가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01 (다)에서 '나'는 자신의 이름에 특별한 뜻이 없고, 쓰기 쉬우라고 아빠가 자신의 이름을 한 글자로 지었다는 것을 알고 창피해한다. 따라서 ⑤에 대한 답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 02 사람들이 자신을 '닭대가리'라는 별명으로 부르면서 시기, 질투하지 않아 가게에 해를 주지 않으니 오히려 다행이라는 아빠의 말에서 너그러운 마음과 현명한 생각이 드러난다. '나'는 이를 보고 무식한 사람을 얕잡아 보는 닭대가리라는 별명은 아빠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03 [A]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아이가 이름을 쓸 때 겪을 어려움을 생각해 이름을 한 글자로 지었다는 아빠

의 말이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

- 05 '나'의 아버지는 (다)에서 백석의 시를 잘 모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나름대로 해석해 주려고 애쓰고 있다. 하지만 술술 쉽게 해석해 준다고 볼 수는 없다.
- 06 (다)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걱정을 해결해 주고 싶어서 배경 지식이 없어 잘 모르는 작품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를 해석해 알려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 07 성장을 다룬 작품을 감상하면 인물에 공감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인간의 삶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는다고 해서 살면서 생길 수 있는 갈등과 마찰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08 이 글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과 사람에게는 훌륭한 면, 부족한 면 등 다양한 면이 공존함을 깨달으며 성장해 나가는 '나'의 모습이 나타난다. 따라서 약점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이 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다.
- 09 아버지는 솔직하게 자신이 백석의 시를 잘 몰라 도와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아들이 아버지처럼 너무 무지하게 살지는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또한 아버지가 하는 일만큼은 확신을 갖고 잘 알고 있으며 열심히 살고 있으니 아들도 기죽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 11 (나)는 소설로, 인물('나')이 겪는 갈등을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
  - 오답풀이 ① (가)는 소설이다.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 리듬감을 느끼며 읽어야 하는 것은 시이다.
  - ③ (나)는 소설이다.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을 파악하며 읽어야 하는 것은 논설문이다.
  - ④ (다)는 시나리오이다.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를 찾으며 읽어야 하는 종류의 글은 주로 수필이다.
  - ⑤ (라)는 시나리오의 지문 부분이다. 독백은 배우가 혼자서 말하는 대사로, (라)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12 아버지는 사람들이 자신을 닭대가리라고 부르며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야 수입산이라고 헛소문을 내지 않고 지금 처럼 장사가 잘될 것이라고 생각할 뿐, 아버지가 파는 닭이 수입산이라고 소문이 난 것은 아니다.
- 13 수영 언니는 제희에게 수영할 때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하고 있으므로 제희의 수영 실력이 늘도록 돕는 인물이다.
- 14 ㉠에는 수영 언니의 도움이나 보조 도구 없이 스스로 수

영하여 반대편 수영장까지 헤엄쳐 간 제희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는 제희가 스스로 수영할 수 있게 되어 홀로서기에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 15 (가)는 대중 매체로, 수용자는 내용이 모두 방송된 이후에 수정이나 추후의 재생산 과정에 의견을 내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방향 소통이 주를 이룬다.
- 16 개인 인터넷 방송은 방송 규제를 덜 받아 상호 등을 표현하는 데 있어 비교적 자유롭다.
- 17 대중 매체는 개인 인터넷 방송보다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송 심의를 준수해야 하며 방송 내용의 공정성이 중시된다.

고년도 문제로 만점 올리드 59쪽

- 01 ② | 글쓴이는 '나'가 아버지를 향해 웃고 싶어 하지만, 혼란스러운 심리와 상황으로 인해 생각과 다르게 웃지 못하는 마지막 장면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는 가슴 아픈 경험을 통해서도 사람은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02 ④ | '나'는 아버지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점, 놀림을 받아 의기소침할 때가 있다는 점을 통해 아버지에게 새롭게 인식하면서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한다. 이는 '나'가 시집을 손에 땀이 나게 쥐고 굳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 오답풀이 ① 아버지의 너그럽고 현명한 모습을 '용머리'에 비유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나'의 존경심을 의미한다.
  - ② 무식한 사람을 알보는 별명이 아버지에게 붙은 것을 싫어하는 모습에서 아버지에 대한 '나'의 긍정적인 마음을 읽을 수 있다.
  - ③ '나'는 아버지를 늘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백석 시를 읽는 사건을 통해 아버지의 부족한 면을 알게 된다. 이로 인해 '나'는 혼란스러워한다.
  - ⑤ '나'가 닭집이 아버지로 가득 찼다고 느낀 것은 아버지의 성실한 삶을 훌륭하게 느꼈음을 의미한다.
- 03 ④ | 대중 매체는 방송 규제의 틀 내에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준수해야 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표현들이 있으나, 개인 인터넷 방송은 규제를 비교적 덜 받아 표현이 자유로운 편이다.
- 04 ③ | 개인 인터넷 방송은 최근 들어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쉽게 제작하다 보니 방송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피해가 생기기도 한다.

01 ① 02 ⑤ 03 ㉠: 형태 ㉡: 가능 ㉢: 의미 04 가에 비해 나 이 키가 큰 그의 상태를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05 ③ 06 ④ 07 글의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난다. 08 ⑤ 09 ③ 10 ③ 11 기본형-지적하다, 품사-동사, 공통적 의미-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12 ④ 13 ④ 14 ① 15 ④ 16 자신 있는 것을 설명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나'도 아빠에게 힘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17 ⑤ 18 ② 19 ④ 20 개인적으로 관심 있거나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얻기 쉽다.

- 01 단어는 형태 변화 여부에 따라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눌 수 있고, 그중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와 같은 가변어는 활용하여 형태가 변한다.
- 02 '무척'은 '아름답다'라는 형용사(용언)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나머지는 모두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 04 ㉠의 '무척'은 부사로, '크다'라는 형용사를 꾸며 주어 '크다'의 뜻을 더욱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해 준다.
- 05 (가)에서는 무색 페트병을 잘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색 페트병을 무색 페트병과 구분하여야 하는 이유는 유색 페트병이 재생 원료를 오염시키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 06 ㉡에는 무색 페트병을 배출하는 순서와 주의할 점을 제시해야 한다. 무색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이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은 ㉢에 넣기에 적절하다.
- 08 ㉠은 '확실하다'라는 형용사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요즘'은 명사이다.
- 09 '중요하지만'의 기본형은 '중요하다'로 형용사이다. 형용사는 용언에 속하는데,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며 주로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 10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한다는 뜻을 지닌 조사이다. ③은 감탄사에 대한 설명이다.
- 12 자료의 내용은 과장, 축소, 왜곡해서는 안 된다.
  - ① 필요하다면 두 개 이상의 자료를 합쳐서 활용할 수도 있다.
  - ② 수집한 자료는 중요도를 판단해서 글에 활용해야 한다.
  - ③ 수집한 자료는 독자들의 수준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
  - ⑤ 출처를 정확히 밝힐 수 있도록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 13 이 글은 '나'가 훌륭하게 생각했던 아빠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성장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 글을 읽고 사람마다 부족한 점이 있음을 깨닫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갈 수는 있으나, 사람의 부족한 점만을 자세히 관찰하겠다는 반응은 적절한 감상이 아니다.
- 14 (나)에서 아빠는 백석의 시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 이는 아들에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고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5 ㉢은 아빠가 기운을 내어 자신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아빠에게 용기를 주고 싶지만 아빠에 대한 인식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스러워하는 '나'의 상태를 보여 준다.
- 16 아빠는 자신이 잘 아는 답에 관해 말하며 답 모가지를 쥐고 혼든다. 이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나'가 알게 되었지만 의기소침한 마음을 이겨 내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빠의 모습을 본 '나'는 아빠에게 힘을 주고 싶어 ㉠와 같은 생각을 한다.
- 17 개인 인터넷 방송은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규제를 덜 받아 표현이 자유로운 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나)에서와 같이 허위 정보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 18 대중 매체는 전문가 집단이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제작한다.
- 19 (라)에서는 많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방송을 시청하며 같은 내용을 공유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으나,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대중 매체는 수용자가 실시간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닌다.
- 20 개인 인터넷 방송은 수용자 개인이 관심을 가지는 정보나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 수용자가 개별적인 매체 이용을 경험할 수 있다.